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김은영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연구책임

김은영

연구진

신현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성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체 주택 제안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종료 청소년 4명 중 1명이 취약계층으로 편입

2017년 기준 전국 12,789명의 아동이 280개의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퇴소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종료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는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영구 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같은 주거 혜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 진학 시 대학입학 장학금 300만 원이 나오고 워크넷, 취업 사관학교 등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4명 중 1명이 취약계층으로 편입된다는 관련 기사를 보면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진로와 주거, 정서 문제 현황을 깊이 있게 기록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조사해 전반적 상황과 구조적 해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수목적으로 공동 거주하고 있는 국내외 커뮤니티 하우스 사례를 조사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공동체주택 모델을 제안하였다.

독립적 개인공간·대안가족 교류 공간이 함께 있는 공동체주택 꿈꿔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된 남녀 4인의 퍼소나(Persona)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희망하는 미래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들을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3인을 인터뷰하여 보호 종료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퍼소나 리서치에서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재정, 진로 그리고 정서 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는 주거 여정, 현 주거 실태와 희망 사항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진로’이고 그다음이 ‘주거’와 ‘경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호 종료 청소년은 기존의 단체 생활과 달리 개인공간이 확실하고, 다양한 활동과 마음 편한 교류가 가능한 집을 꿈꾸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거주 시나리오를 작성해 추구하는 공간이미지를 도출하였다.

[표 1] 퍼소나 리서치 발견점

개요	대상	· 친구, 지인, 선후배(선생님 거주 가능)
	비용	· 월세 20~30만 원
공간	입지	· 대중교통 접근성 보통(지하철에서 도보 15~20분 내외) · 골목의 경사가 너무 높거나 어두운 지역 제외
	개인공간	· 독립적이고 안락하고 취향이 존중되는 개인실 확보 · 채광/환기/방음/안전 등 기본적인 주거성능 충족
	공용공간	· 휴식과 교제가 원활한 공용거실 및 식당 필요 · 청소/빨래/요리 등 일상 생활관리가 원활한 공간 필요
운영	커뮤니티 케어	· 생활 규칙 간소화와 생활 관리의 어려움 해소 · 친구/선후배/생활지도 선생님과의 동거 장점 발굴
	프로그램	· 진로·생활관리 등 유용한 프로그램 필요

그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 단체 대표, 아동복지시설 선배 창업자 등 보호 종료 청소년을 지원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퇴소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커뮤니티 하우스 해법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가 바라보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이고 그다음이 ‘진로’이다. 즉, “오늘 당장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진로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또한 주거비용 절감이 가능한 공간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2]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발견점

개요	대상	·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또래와 선후배(대학생 > 직장인)
	거주 기간	· 2년(대학생은 6년)
	비용	· 월세 20~30만 원
공간	입지	·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확보(지하철에서 도보 10분 내외) · 안전한 귀가 지원(뒷골목, 어두운 거리 제외)
	개인공간	· 독립적 개인공간 확보로 프라이버시 존중
	공용공간	· 가족 공동체와 같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용공간 필요
운영	커뮤니티 케어	· 자연스러운 연대감 형성 위해 자체 이벤트·프로그램 운영 · 구성원이 함께 정한 규칙 필요 · 문제 발생 시 수시로 모여 논의하는 자체 반사회 프로세스 구축
	<u>프로그램</u>	·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자존감과 자신감 회복 -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교육 -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

“존중·공감 받는 공동체 경험해야”...자존감 회복이 최우선 과제

국내외 자립·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대상 데스크 리서치와 현장 답사를 수행해 공간·시설,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피아는 설립자와의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해 청소년 지원 사업의 미션과 비전, 철학에 관한 통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 종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연대

감을 주는 준거 공동체가 없으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다. 더욱이 사회적 관계망이 많지 않은 보호 종료 청소년은 이러한 공동체에서 얻는 유대감이 더욱 절박할 것이다.

또한 “물리적 여건 이전에 누군가에게 충분히 존중받고 공감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별적 케어보다 통합적·연속적 과정이 설계되어야 합니다.”라는 인터뷰에서 자립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의 활동은 자아 이해와 성찰, 자존감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 국내외 자립·성장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벤치마킹 조사

구분		대상	특징
국내	청소년 자립 지원 주택		
	자립관 비상	가출 청소년 퇴소 청소년 거리의 아이들	· 개인공간과 주방/거실/욕실 등 공용 생활공간 · 입주상담, 일자리 연계, 사회 적응 상담 프로그램
	세모아	범죄 경험 청소년	· 치유와 회복, 대안가족 공동체 형성 ·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 회복
	서울시 공동체 주택, 사회 주택		
	배우의 집	문화예술종사자	· 개인공간, 거실/주방 등 커뮤니티 공간, 방송/연극 연습 가능한 스튜디오 · 공동체 코디네이터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쉐어어스	고시생	· 1인실부터 6인실까지 다양한 개인공간 제공, 커뮤니티 라운지와 층별 공용공간 구성 · 스터디, 공동 식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국외	일본 Fespa Kyoto	창업가 예비 창업가	· 개인실과 도미토리룸 형태의 개인공간, 주방/코워킹 스페이스 등 공용공간 · 멘토링, 세미나, 스터디, 네트워킹 파티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국 Harbour Youth Community	싱글 직장인	· 주상복합아파트로 독립적인 개인공간과 세탁실/ 피트니스룸/영화감상실/라운지 등 공용공간 · 생일파티, 할로윈 파티와 식사 모임 등 입주민의 자발적 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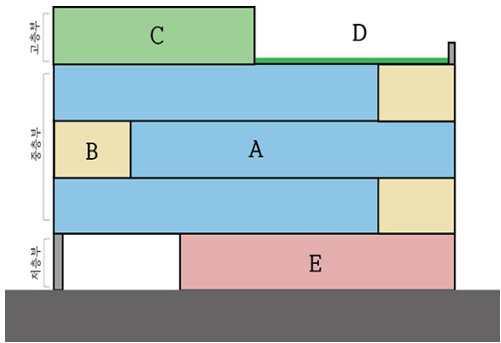
[표 4] 국내외 자립·성장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벤치마킹 발견점

개요	대상	· 유사한 분야(선후배), 상황(주거취약), 목적(고시생)의 청년층
	거주 기간	· 자립 지원 공간은 보통 6개월~3년이며, 민간은 제한 없음
	비용	· 자립 지원 공간은 소정의 비용 소요(월세가 아닌 관리비) · 국내는 20~35만 원, 해외는 입지와 수요층에 맞춰 다양함
공간	개인공간	· 작아도 독립적 개인공간 보장 ·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닛 제공 · 3~7개 유닛별로 공동이 함께 사용하는 거실/주방/욕실 제공
	공용공간	· 개인공간은 콤팩트하게 구성하고 공용공간은 넓고 다양하게 제공
운영	커뮤니티 케어	·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넘어 자발적으로 생활 규칙을 정함 ·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예시: 비상약 제공, 택배 보관 등)
	프로그램	· 교육과 자립 지원 이전에 자존감 회복을 선행적으로 중요시 함 ·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한 자립과 성장지원 활동 실행 · 청년기 맞춤형 경제 교육, 진로 환승, 일자리 지원 활동 진행
	기타	· 입주 전후 변화 계획 평가로 입주자 선정 (세품아 제외) ·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 · 공동체주택과 사회 주택 지원제도의 활용

보호 종료 청소년 특성 고려한 공간프로그램 지원하는 공동주택 제안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대상 퍼소나 리서치, 이해관계자 인터뷰, 공유 주택 조사로 도출한 발견점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커뮤니티 하우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존감 회복, 자립과 성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와 연계되는 활동이 분명한 ‘모여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관한 기획·설립·운영의 전 과정에 서울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지만 독립적인 개인공간을 거주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 제공하고,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용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도 반영하였다. 이것은 보호 종료 청소년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규모 있는 공간이 실현된다면 다양한 청년층과 함께 거주하여 소셜 믹스를 이룰 수 있다.



[그림 1] 커뮤니티 하우스 공간 구성 제안

(A 개인공간, B 층별 공용공간, C 전층 단위 실내 공용공간,
D 전층 단위 실외 공용공간, E 공용 혹은 근생 공간)

커뮤니티 케어는 평등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밀한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정서적·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준비 단계로 실행하고자 한다.

[표 5] 커뮤니티 하우스 커뮤니티 케어와 생활 규칙 제안

특성	커뮤니티 운영/생활 규칙
	<u>모두가 똑같이 1표</u>
평등	· 수평적, 자율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 케어 멘토는 파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 수행
	<u>개인 사생활 배려</u>
자율	·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커뮤니티 지향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음 금지
신뢰	· 남의 물건 허락 없이 사용 금지(도난사고 예방) · 지인 초대 등 외부인 방문 관련 내부 규정은 합의로 결정
존중	<u>함께 만드는 문화</u>
	· 생활관리 측면에서 에코라이프 실천(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등)
책임	·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 방식 확립, 역할 분담과 보상 제공 · 반려견 케어로 정서 안정과 책임의식 고취
협동	<u>알럼나이(Alumni) 관리</u>
	· 커뮤니티 하우스 졸업 후에도 기존 입주 후배와의 교류 기회 제공
	· 자립 후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믿는 연결고리 마련
성장	<u>자립 준비</u>
	· 케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자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스터디 모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핵심 가치인 연대·성장·자립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신규 개발보다 이미 잘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업을 지향한다.

[표 6] 커뮤니티 하우스 프로그램 제안

특성	방향·예시
자존감 회복	·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 (예시: 세뽀마 몽골 힐링 캠프, 프롬더바디 건강 증진 클래스 등)
진로 탐색	· 주요 관심사와 재능 발견을 위한 창의적인 진로 모색 (예시: 소이프 디자인 진로 교육, 하자센터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 등)
역량 강화	· 진로와 연계하여 멘토링 제공과 다양한 체험 학습 (예시: Global Youth Fair 자원봉사, 무중력지대의 무중력 보습학원 등)
경제 교육	· 생활비 관리를 비롯한 경제적 자립 자금 마련 (예시: 삼성증권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서울시 '희망 두 배 통장' 등)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동체주택 시범사례’로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표 7] 사업단계별 정책 제안

기획	· 민관이 협력하는 특성화된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지원책 필요 · 보조금, 기금 융자, 사업 운영 지원 등 전반적 사업 지원 요청
건립	· 서울시가 보유한 빈 땅, 빈 집을 싼 가격에 장기임대해주는 정책 연계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건축가협회 등과 연계한 설계 협업 기대 · 집수리닷컴, 건설명장 등과 함께하여 완성하는 적정 주거 건립
운영	· 민관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유용한 자립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회주택으로서 마을공동체와 교류 활성화 · 특수한 상황의 대학생도 공동체주택 대출제도의 수혜자로 선정 지원

이 연구가 제안한 커뮤니티 하우스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주택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미혼모 가구, 조손 부모 가구, 소년·소녀 가장 가구, 다문화 한부모 가구 등을 위한 또 다른 커뮤니티 하우스가 점진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방법	3
02 보호 종료 청소년의 현황 이해	6
1_일반 현황	6
2_자립정착 지원제도	7
03 주거 여정 조사와 아이디어 도출	14
1_조사 계획	14
2_주거 여정 인터뷰	15
3_주생활 일기(Diary & Essay)	43
4_주거 현황과 요구	49
5_주생활 아이디어 도출	60
6_발견점: 문제 정의 및 방향성 발굴	72
04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76
1_조사 계획	76
2_아동복지시설 보육사	78
3_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단체 대표	84
4_아동복지시설 선배 창업자	89
5_발견점: 문제 정의와 방향성 발굴	96

05 자립 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벤치마킹	98
1_조사 계획	98
2_국내 사례	99
3_국외 사례	127
4_발견점: 문제 정의와 시사점 도출	132
06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136
1_주생활 핵심 가치	136
2_솔루션 아이디어	137
3_사업 단계별 정책 제안	141
4_기대 효과	143
참고 문헌	145
연구를 마치며	147

표

[표 1-1]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한 리서치 방법론	4
[표 2-1] 전국 아동복지시설별 아동 현황	6
[표 2-2] 희망두배 통장 저축가능 금액과 지원 내용	9
[표 2-3] 영구임대주택 지원 절차	9
[표 2-4] 아동 연령별 자립준비 프로그램	11
[표 3-1] 퍼소나 유형별 조사 대상	14
[표 3-2] 퍼소나 리서치 일반조사 항목	15
[표 3-3] 퍼소나 리서치 주거 여정 조사 항목(공간/커뮤니티 케어 측면)	16
[표 3-4] 퇴소 전 주거 여정_퍼소나 A	22
[표 3-5]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A	23
[표 3-6] 퇴소 전 주거 여정_퍼소나 B	29
[표 3-7]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B	30
[표 3-8] 퇴소 전 주거 여정_퍼소나 C	34
[표 3-9]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C	35
[표 3-10] 퇴소 전 주거 여정_퍼소나 D	42
[표 3-11]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D	43
[표 3-12] 퍼소나 리서치 주생활 행위별 기준	50
[표 3-13] 개인 관리와 이동_퍼소나 A	50
[표 3-14] 가정 관리 & 교제/여가_퍼소나 A	51

[표 3-15] 개인 관리 및 이동_퍼소나 B	52
[표 3-16] 가정 관리 & 교제/여가_퍼소나 B	53
[표 3-17] 개인 관리 및 이동_퍼소나 C	54
[표 3-18] 가정 관리와 교제/여가_퍼소나 C	55
[표 3-19] 개인 관리와 이동_퍼소나 D	56
[표 3-20] 가정 관리와 교제/여가_퍼소나 D	57
[표 3-21] 퍼소나 리서치 현황과 문제점 종합	58
[표 3-22] 퍼소나 리서치 니즈 종합	59
[표 3-23] 퍼소나 리서치에 의한 커뮤니티 하우스 요구 사항	73
[표 4-1] 이해관계자 유형별 조사 대상	76
[표 4-2] 이해관계자 리서치 통합적 조사 항목	77
[표 4-3] 이해관계자 리서치에 의한 커뮤니티 하우스 요구 사항	96
[표 5-1] 자립 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조사 대상	98
[표 5-2]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자립관 비상	99
[표 5-3]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자립팜 이상한 나라	101
[표 5-4]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들꽃피네 카페	102
[표 5-5]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세품아	104
[표 5-6]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삼선동 배우의 집	118
[표 5-7]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사업기획 조사_신림동 쉼어어스	121
[표 5-8] 공간 조사_신림동 쉼어어스 에벤에셀	122
[표 5-9] 개인공간 조사_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124
[표 5-10] 공용공간 조사_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126
[표 5-11]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127

[표 5-12]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페스파 교토	128
[표 5-13]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하버유스 커뮤니티 상하이	131
[표 5-14] 벤치마킹 리서치에 의한 커뮤니티 하우스 특성	133
[표 6-1]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핵심 가치 제안	137
[표 6-2]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공간 구성 제안	139
[표 6-3]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운영 및 생활 규칙 제안	139
[표 6-4]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예시)	140

그림

[그림 2-1]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청소년 연도별 추이	7
[그림 3-1] 퍼소나 리서치 진행 스케치	14
[그림 3-2] 주거 현황 사진_퍼소나 A	44
[그림 3-3] 주거 현황 사진_퍼소나 B	46
[그림 3-4] 주거 현황 사진_퍼소나 C	47
[그림 3-5] 주거 현황 사진_퍼소나 D	48
[그림 3-6]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소나 A	62
[그림 3-7]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소나 B	66
[그림 3-8]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소나 C	68
[그림 3-9]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소나 D	69
[그림 3-10] 커뮤니티 하우스 개인공간 Mood Board_퍼소나 종합	70
[그림 3-11] 커뮤니티 하우스 공용공간 중 거실 Mood Board_퍼소나 종합	71
[그림 3-12] 커뮤니티 하우스 공용공간 중 주방 Mood Board_퍼소나 종합	71
[그림 3-13] 커뮤니티 하우스 공용공간 중 옥외 공간 Mood Board_퍼소나 종합	72
[그림 5-1] 자립관 비상 공간 현황	100
[그림 5-2] 자립팜 이상한 나라 프로그램 현황	101
[그림 5-3] 들꽃피네 카페 프로그램 현황	102
[그림 5-4] 삼선동 배우의 집 외관, 평면, 공간	119
[그림 5-5] 신림동 쉼어어스 현황	120

[그림 5-6] 신림동 쉼어어스 에벤에셀 외관, 평면, 공간	123
[그림 5-7]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층별 평면	124
[그림 5-8]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개인공간	125
[그림 5-9]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공용공간	126
[그림 5-10]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프로그램 운영	127
[그림 5-11] 페스파 교토 외관, 평면, 공간	129
[그림 5-12] 하버유스 커뮤니티 상하이 외관, 평면	131
[그림 5-13] 하버유스 커뮤니티 상하이 공간	132
[그림 6-1] 커뮤니티 하우스 공간 구성과 참고 이미지	138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총 281개로 약 1만 4천 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해 약 1천 명이 보호 종료가 되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청소년이 매년 약 100~150명이다(보건복지부, 2017).

이들에게는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며 대부분 월세, 관리비 혹은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지원제도가 있지만 수혜율은 20% 미만이며 정착하기 전 머무를 수 있는 자립 지원 시설도 전국에 12곳, 서울은 3곳에 불과하다. 보호 종료 청소년의 퇴소식은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라기보다 떠나보내는 것을 ‘염려’하는 슬픈 이별식이라고 한다.

자립하려면 만 18세는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은 다가올 현실 체감도 부족한 채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 연구목적

기본적인 경제 상황과 주거 불안정은 이들의 학업·취업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보호 종결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퇴소 후 단순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은 약 50%가 넘고, 월평균 수입은 2017년 최저임금인 135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123만 원에 겨우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떠나 5년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 이들이 향

후에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래 불안감과 정서 교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과 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깊이 있게 인터뷰해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2_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소년의 일반 상황과 주거실태를 우선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주거 여정을 추적하고,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인터뷰로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된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하우스를 조사·답사한다. 여기에서 도출한 발견점과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 종료 청소년이 안정감을 갖고 사회에서 독립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가치와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 언론기사, 통계자료, 관련 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한 데스크 리서치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워크숍 진행
- 아동복지시설, 관련 지원 단체, 선배 창업자 등 대상 1:1 대면 인터뷰
- 국내외 특성화된 커뮤니티 하우스 사례 조사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결론을 유의미하게 도출하려면 먼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삶의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서비스 디자인은 면밀한 사용자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내재하고 있는 욕구를 발견하여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등 사용자로부터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표 1-1]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한 리서치 방법론

항목	내용
DISCOVER 방향성 발견하기	Target Demographic & Lifestyle · 보호 종료 청소년의 현황 이해 (성장 배경, 경제 상황, 진로) · Desk Research
	Self-supporting System Research · 자립 지원 제도 조사 · Desk Research
DEFINE 진짜문제 정의하기	Persona Research · 주거 여정 지도에 따른 문제점과 아이디어 도출 · Shadowing/Interview/Workshop/Project Task
	Stakeholder Research · 보육사, 보육원 선배 등 이해관계자 현황 이해와 의견 도출 · Interview
DEVELOP 아이디어 발전하기	Space & Community Safari · 국내외 자립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사 · Field Trip/Interview
DELIVER 아이디어 공유하기	Community House Proposal · 주생활 핵심 가치, 솔루션과 정책 제안 · Desk Research/Brainstorming/Idea Development

자료: KIDP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참조

02

보호 종료 청소년의 현황 이해

1_일반 현황

2_자립정착 지원제도

02 | 보호 종료 청소년의 현황 이해

1_일반 현황

1) 아동복지시설 아동 현황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아동복지시설이 그룹홈을 제외하고 약 280개가 있고, 12,789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49개 시설에 2,737명이 생활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로 되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2015년 기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은 2,468명이고, 2017년 기준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은 3곳으로 74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 전국 아동복지시설별 아동 현황

(단위: 개소/명, 2017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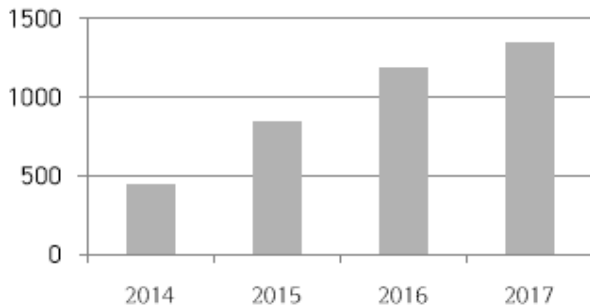
구분	계 (현원)		양육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전국	17,850	12,789	15,866	11,665	643	497	362	221	754	279	225	127
서울	3,786	2,737	2,857	2,330	175	155	95	74	469	77	190	101

자료: 보건복지부, 2018

2)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현황

복지연합 신문(2015)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보호 종료 청소년은 2,648명이다. 그중 가정위탁아동은 1,528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980명으로 약 37%이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은 140명으로 5.3%에 해당한다.

또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설 퇴소 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설 퇴소한 아동 20,69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인원은 5,052명으로, 24.4%에 달한다.



[그림 2-1]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청소년 연도별 추이

자료: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47>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10,557명 중 4,350명(41%)이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자립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노숙인 중 아동복지시설 출신도 2014~2017년간 매년 70~90명으로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최도자 의원실, 2018)

2_자립정착 지원제도

1) 경제적 지원

각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 장학금, 디딤씨앗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자립정착금

지자체별 금액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의 자립정착지원금은 500만 원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아름다운재단과 아동자립단 자료에 따르면, 퇴소 후 청소년은 자립정착금 중 약 40%를 보증금·월세에 사용하며 생활비로도 약 40% 정도 사용한다. 그 외에 가전·가구 구입비로 약 25%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학등록금과 교재비에 충당한다(베이비뉴스, 2016).

(2) 대학입학 장학금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는 1인당 300만 원 범위로 학자금이 지원된다. 이 금액은 청소년이 대학 진학 시기에 맞춰 제공된다.

(3)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저축하는 경우, 1:1 정부매칭 지원금으로 매월 4만 원 이하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준다. 이것은 보호 종료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준비하여 사회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 대상: 시설보호 아동/가정위탁보호 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장애인시설보호 아동/가정복지아동/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등
- 용도: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대학 학자금/취업·자격 훈련비/창업지원금/주거비/의료비 그리고 결혼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4)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층 청년에 희망의 미래를 지원해주기 위한 청년 통장이다. 참가자가 2~3년 동안 매월 받는 소득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근로 장려금은 주거와 결혼, 교육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지원된다.

저축 기간은 저축한 시점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저축 가능 금액과 지원 사항은 [표 2-2]와 같다. 저축 자격은 공고일 기준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8~34세 서울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수혜자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표 2-2] 희망두배 통장 저축가능 금액과 지원 내용

(단위: 만 원)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 원	15만 원	
총적립금(2년)	480만 원+이자	720만 원+이자	
총적립금(3년)	720만 원+이자	1,080만 원+이자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

2) 주거 지원

한국토지공사(NH)는 영구임대, 대학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과 같은 다양한 주거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다소 길고 주거 공간이 오래되어 낡았다는 단점이 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기본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은 주택관리공단이 특별 관리 세대로 지정·관리하며, 지자체·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적극적 자립을 돕는다.

[표 2-3] 영구임대주택 지원 절차

1	입주신청(영구임대단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2	예비입주자 선정(지자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
3	예비입주대상자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4	퇴거 예정 세대 발생 시 입주 통보
5	임대차 계약체결
6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전입신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 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은 약 1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N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

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상’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파파트의 98%가 20년이 넘는 노후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아시아뉴스통신, 쿠키뉴스).

(2)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이미 퇴소한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이 1순위에 해당한다. 독립세대주로서 한 세대 공동 신청이 가능하며(세대당 입주 인원 2인 이하, 형제자매 등 시설 퇴소자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3인 이상 가능), 지원 규모는 재학 중인 대학 지역 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전세·월세 주택이 해당한다.

2015년 기준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이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일반주택은 서울/경기/인천이 호당 8천 만 원이고 광역시는 6천만 원이며,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이다.

대학생 전세 임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등이다. 대상자 발표가 나면 입주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스스로 물색해야 하며,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면 된다(보건복지부, 2017).

(3)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대리 양육·친인척위탁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와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전세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만 20세 이후에는 연이자 1~2%를 부담해야 하며 소득·주택 소유 여부 등 대상가정의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주택으

로(1인 단독세대는 60㎡), 서울과 수도권은 8천만 원, 광역시는 6천만 원, 기타 지역 5천만 원이다(보건복지부, 2017).

3) 교육과 취업 지원

(1) 연령별 자립 준비 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연령에 맞춰 단계적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정서·진로·경제·일상생활·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세분화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제공되고 있다.

[표 2-4] 아동 연령별 자립준비 프로그램

미취학~초2	초3~초6	중1~중3	고1~퇴소 전
· 기초학습지도 · 독서지도 · 원가족 유대강화	· 정서 지지체계 · 학습지도 · 경제교육	· 진로적성검사 · 자립예비사정 · 자립준비척도	· 자립 사정 · 취업/진학 상담 · 자립준비척도
· 일상생활 기술 · 자기보호 기술 · 지역사회 활용 · 사회적 기술	· 일상생활 기술 · 자기보호 기술 · 돈 관리 기술 · 사회적 기술 · 진로/취업 탐색	· 일상생활 기술 · 자기보호 기술 · 돈 관리 기술 · 사회적 기술 · 진로/취업 탐색	· 일상생활 기술 · 자기보호 기술 · 돈 관리 기술 · 사회적 기술 · 진로/직장 기술 · 다시 집 떠나기

자료: 참여연대 복지동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호종결아동 자립현황과 대안'

(2) 학업과 취업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폴리텍 대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대학은 국가가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려고 설립한 기관으로 우수 시설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저렴한 학비가 장점으로, 1년제 과정은 무료이고 2년제 과정은 대부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후원자, 기업체, 장학재단 등이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17).

취업 준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커리어넷, 직업 훈련 포털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영삼성, 잡코리아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03

주거 여정 조사와 아이디어 도출

- 1_조사 계획
- 2_주거 여정 인터뷰
- 3_주생활 일기(Diary & Essay)
- 4_주거 현황과 요구
- 5_주생활 아이디어 도출
- 6_발견점: 문제 정의 및 방향성 발굴

03 | 주거 여정 조사와 아이디어 도출

1_조사 계획

1) 퍼소나 리서치



[그림 3-1] 퍼소나 리서치 진행 스케치

(1) 조사 개요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혹은 중단 5년 이내 남녀 4인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주거 여정을 면밀하게 추적해 현재 주거 현황을 분석하였고, 주거 요구 사항을 발굴해 주생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2) 조사 대상

[표 3-1] 퍼소나 유형별 조사 대상

퍼소나	퍼소나 A	퍼소나 B	퍼소나 C	퍼소나 D
연령	만 22세	만 22세	만 20세	만 18세
성별	남	여	남	남
소속	대학생	대학생	휴학생(알바)	고등학교 3학년
주소	서울시 은평구	인천시 연수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자립	5년차	5년차	2년차	1년차
주거경험	4곳	7곳	4곳	5곳

2_주거 여정 인터뷰

1) 조사 계획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출생부터 현재까지 주거 여정 조사를 실시해 주생활 경험과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자 하였다(아동복지시설 포함).

나. 조사 방식: 개별 인터뷰

다. 조사 일시: 2018월 6월 16일(토) ~ 30일(토)

(2) 조사 항목

[표 3-2] 피조사 리서치 일반조사 항목

구분	항목	
기초 사항	성별(남/여)	
	연령(만)	
	퇴소 시기와 퇴소 연령	
	현재 소속(대학생, 고등학생, 일반 기업, 아르바이트, 무직, 기타)	
재정 관리	현재 거주 지역	
	월수입(근로소득, 정부지원금, 기타)	
	월 지출	평균 지출
		주요 지출내역(1순위/2순위/3순위)
		개인 부채(부채 있음/부채 없음)
		개인 저축(저축함/저축 안함)
	기 타	세금 같은 것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돈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은가?
진로 관리	학업(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입학 준비, 기타)	
	커리어(취업, 취업 준비, 기타)	
	기 타	어떤 직업 경험이 있는가?
		현재 일하는 것에 잘 적응하는가? 잘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정서 관리	일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가?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가?	
	휴가,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빈도/누구/어디에서?)	
	아플 때 주로 누구와 연락하는가?	
	도움을 원할 때 누구에게 가장 의지하는가?	
	특정 종교가 있는지?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지?	

[표 3-3] 퍼소나 리서치 주거 여정 조사 항목(공간/커뮤니티 케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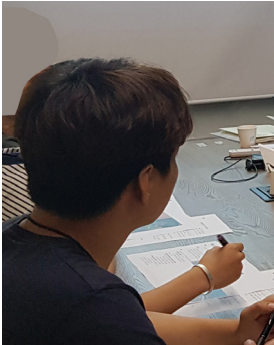
구분	항목
전반적인 사항	지금까지 경험한 거주 공간의 개수와 유형?
	가장 좋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
	가장 좋지 않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가?
퇴소 전	지역/시설 형태/거주 기간/운영 기관/규모/인원
	공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구성, 배치, 규모, 시설 등), 기타
	커뮤니티 케어: 보육 책임자, 동거인, 프로그램, 생활 규칙, 기타
	Touch point(공간과 커뮤니티 케어 측면): Joy point, Pain point
퇴소 후	지역/시설 형태/거주 기간/운영 기관/규모/인원
	공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구성, 배치, 규모, 시설 등), 기타
	커뮤니티 케어: 보육 책임자, 동거인, 프로그램, 생활 규칙, 기타
	Touch point(공간과 커뮤니티 케어 측면): Joy point, Pain point
현재 거주 공간	거주 지역
	주거 유형(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셰어하우스, 기타(원룸))
	동거인 수
	공간 규모(실사용 면적 혹은 전용면적 기준)
	침실 수
	주택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반전세 포함), 기타)
	현재 임대료(보증금 / 월세)
	주거비 부담
	주거 만족도
	만족하는 부분(거주 비용, 교통 입지, 주거 환경, 공간 요소, 이웃)
	불만족하는 부분(거주 비용, 교통 입지, 주거 환경, 공간 요소, 이웃)
	지원 여부 정부지원, 정부 외 지원)
	주거 안정도(안정, 1년 이내 이주 필요, 6개월 이내 이주 필요)
	입주 정보 취득 과정

2) 조사 내용_퍼소나 A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혼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 침실이 확실하고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쓸 수 있다면 셰어하우스 같은 주거공간도 싫지 않습니다.”

(1) 일반적 사항

① 기초사항



- 성별: 남
- 연령 (만): 22세(1996년생)
- 퇴소 시기/연령: 19세
- 현재 소속: 대학생(독문학과)
- 현재 거주 지역: 은평구 갈현동

② 재정 관리

- 월수입/월 지출은 얼마인가?: 근로소득은 없으며 월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55만 원과 개인 후원금 15~20만 원을 합쳐 약 70~75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지출은 월세 포함 약 70만 원인데, 식비가 가장 크고 주거비·관리비·공과금·여가비(볼링) 순입니다. 평소 옷을 별로 안 사고 술도 안 먹습니다.
- 개인 부채/저축/세금 지불의 상황은 어떠한가?: 부채는 없습니다. 별도로 저축을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세금이 거의 없지만 가끔 지방세가 나오면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돈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은가?: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100~1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진로 관리

- 학업·취업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독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며, 졸업 후 계획은 고민 중입니다.
- 어떤 일을 해 보았는가?: PC방 아르바이트, 상하차 짐 옮기기, 눈썰매장 안전요원, 식당 서빙 일을 했습니다.

-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가?: 일하는 동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④ 정서 관리

-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고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가?: 후원 단체 분과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지만 별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참여하는 모임도 거의 없어요. 축구는 좋아해서 간혹 어울리고 있어요.
- 휴가나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볼링을 하거나 영화 보기도 합니다.
- 몸이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아픈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아프게 되면 지원 단체 분에게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도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 특정 종교가 있는지?: 천주교였지만 현재 성당을 다니지 않습니다.
-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지?: 중·고등학교 시절 4~5번의 경험이 있지만 성인 이후에는 없습니다.

(2) 주거 여정(공간/커뮤니티 케어 측면)

① 전반적인 사항

- 지금까지 경험한 거주 공간의 개수와 유형은 어떠한가?: 총 4곳입니다. 부산의 보육원이 처음이었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서울의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퇴소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평구의 다가구에서 후배와 함께 살아요.
- 가장 좋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에 거주한 부산의 보육원이 좋았습니다. 공간이나 시설이 좋아서라기보다 또래 친구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가장 좋지 않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서울의 보육원은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 향후 어떤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가요?: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혼자 살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 침실이 확실하고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쓸 수 있다면 셰어하우스 같은 곳도 싫지 않습니다.

② 퇴소 전 주거 경험

① 생애 최초 거주 공간

- 지역/형태/기간/운영주체/규모와 인원은 어떠했나?: 부산의 규모가 큰 복합시설이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머물렀는데 이곳은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영유아동, 유치부동 등 여러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 공간은 어떠했나?: 커다란 홀에 자는 곳, 노는 곳, 먹는 곳 그리고 학습하는 곳이 함께 있었는데, 바닥에 이불을 펴고 다함께 잤습니다. 다른 쪽에는 주방이 있었고 복도 끝에 큰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 커뮤니티 케어 측면은 어떠했나?: 보육교사 1~2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10명 내외 정도였어요.
- 프로그램은 있었는지?: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별다른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이었지요.
- 생활 규칙은 무엇이 있었나?: 유치원생들이라 보통의 유치원에 있는 규칙과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낮잠 시간이 있었어요.
- 즐거운 경험과(Joy point) 어려운 점(Pain point) 무엇이었나?: 공간이나 시설보다는 또래 아이들처럼 노는 것이 그저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뒹굴고 뛰어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좋지 않은 기억은 밤에 제때 안자서 혼난 것입니다.

② 퇴소 전 거주 공간

- 지역/형태/기간/운영주체/규모와 인원은 어떠했나?: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서

울로 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생활했습니다.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남녀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단체로 운영하는 굉장히 큰 시설이었고, 남녀 합쳐 약 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 공간은 어떠했나?: 2층 침대가 6~7개 들어가 있는 침실에서 초등학생 때는 약 14명, 중고등학생 때는 약 8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혼자 있을 공간이 없었지만, 사실 그럴 틈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침실 4개당 1개씩 층별로 있었고, 그 외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도서관도 있었지만 어린이 관련 도서가 주로 있어서 잘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녀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체육관 등에서 가끔 보게 되면 좀 어색하곤 했습니다.
- 커뮤니티 케어 측면은 어떠했나?: 수녀님과 보육사 선생님이 2인 1조로 저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한 방에 10명 남짓이 거주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불편한 친구가 있어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통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 프로그램은 있었는지?: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특히 매년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에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남녀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날에 갔습니다.
- 생활 규칙은 무엇이 있었나?: 생활 규칙이 많았습니다. ‘6시 기상 9시 수면’ 규칙이 있는데, 수면 시간 이후에 불을 켜면 당직 선생님께 혼이 나고 기록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 즐거운 경험과(Joy point) 어려운 점(Pain point) 무엇이었나?: 친구들과 붙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면, 규칙이 상당히 빡빡했습니다.

③ 퇴소 후 거주 경험

Ⓐ 퇴소 후 거주 공간_1(친구 집 일시 거주)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퇴소 후 은평구의 친구 오피스텔에서 3개월간 머물렀어요. 두 명이 함께 살았는데 약 10평 정도 되는 원룸으로, 침실을 같이 사용했어요.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나?: 월세 집이었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50만 원 이었습니다.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하는 부분은 규칙이 없다는 점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은 친구네 집이라 오래 거주할 수 없었고, 청소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지원이나 정부 외 지원이 있었나? 주거 안정도는 어떠했나?: 지원을 받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집이라 안정적이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 퇴소 후 거주 공간_2(선후배 동거)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다가구주택에서 후배와 함께 거주하는데 10평이 조금 넘는 곳으로 침실, 주방 겸 거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두 개라서 개인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전세 4,000만 원인데 LH의 공사 지원을 받기 때문에 2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이자 3만 ~ 4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불만족과 보통 사이입니다. 나만의 침실이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지하철역에서 꽤 멀고,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많이 낡아서 흥흥할 정도입니다. 벽지도 떨어져 나가고 방충망도 여러 군데 뚫려 있습니다. 또한 욕실이 좁은데 샤워 공간이 별도로 없고 수도꼭지만 벽에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도 없어서 씻기가 불편합니다.

- 정부지원이나 정부 외 지원이 있었나? 주거 안정도는 어떠했나?: 이곳은 내공사 지원 주택입니다. 그런데 내공사 지원 주택은 집주인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이 낡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집도 너무 낡고 곰팡이도 많아서 더 좋은 집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 입주 정보 취득 과정은 어떠했는지?: 내공사 지원 주택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는데,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직접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3) 요약

[표 3-4] 퇴소 전 주거 여정 피소나 A

구분	주거 경험 1	주거 경험 2
지역/기간	· 부산/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 서울/초등학교~고등학교 졸업
규모/구성	· n/a	· 남녀 합쳐 약 700명
공간 (개인/공용)	· 개인: 커다란 홀에서 이불 깔고 함께 생활 · 공용: 주방과 화장실	· 개인: 2층 침대가 6~7개 들어가 있는 침실. 초등학교 때 약 14명, 중 고등학교 때 약 8명이 함께 생활 · 공용: 화장실은 침실 4개당 1개씩 있고, 체육관, 실내외 수영장, 운동장, 도서관
커뮤니티	· 보육 교사 1~2명이 10명 케어	· 보육 교사 2명이 교대 10명 케어
프로그램 규칙	· 노는 것이 프로그램이었음 · 낮잠 시간이 있었음	·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가는 행사가 가장 인기가 좋았음 · 오전 6시 기상, 오후 9시 취침
터치 포인트	· Joy: 공간/시설보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뒹굴고 뛰어다니던 기억이 좋음 · Pain: 밤에 제때 안 잔다고 혼난 기억이 있음	· Joy: 친구들과 붙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았음 · Pain: 규칙이 너무 빽빽했음

[표 3-5]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A

구분	주거 경험 1	주거 경험 2
거주 지역	· 서울 은평구 불광동	·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거 유형	· 오피스텔	· 다가구 주택(내 지원 주택)
기간/동거인/규모	· 3개월/친구 1명/10평 미만 (원룸)	· 1년 미만/아는 동생 1명/10평 이상 (침실 2개)
임대료/주거비 부담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50만 원/부담스러움	· 전세 4,000만 원 이자 3만 원 (200만 원 자부담)/부담 없음
주거 만족도 (구체 요소)	· 주거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요소: 규칙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좋음 · 불만족 요소: 청소 관리가 잘 안됨	· 주거 만족도: 보통-불만족 · 만족 요소: 주거비가 낮고 나만의 침실이 있어서 좋음 · 불만족 요소: 지하철역에서 다소 멀고 언덕 위에 위치. 집이 많이 낡아서 벽지가 떨어져 나가고 방충망도 여러 군데 뚫려 있음. 욕실이 좁고 샤워기, 세면대가 없음
주거 안정도	· 친구 집이라 오랜 거주가 어려움	· 6개월 후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
입주 정보 취득 과정	· n/a	· 내공사 지원 주택은 입주인들이 선호하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 내지원 선발 자격 승인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며 발품을 팔아 직접 계약을 했는데 처음이라 어려웠음
재정 관리 (수입/지출)	· 수입: 약 70~7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개인후원자 약 15~20만 원) · 지출: 약 70만 원(식비>관리비, 공과금, 주거비>여가비, 옷은 별로 사지 않고 술도 안 먹음) · 저축: 없음	

3) 조사 내용_퍼소나 B

“내 집 마련이 목표예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서 아무래도 집에 애착이 커요.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1) 일반 사항

① 기초 사항



- 성별: 여
- 연령 (만): 22세 (96년생)
- 퇴소 시기/연령: 2014년 2월/19세
- 현재 소속: 대학생(사회복지전공)
- 현재 거주 지역: 인천시 연수구

② 재정 관리

- 월수입/월 지출은 얼마인가?: 학교에서 조교로 월 20~30만 원을 벌고 있어요. 평균 지출은 약 50만 원 정도 듭니다. 교통비가 10만 원정도이고, 통신비와 인터넷 비용이 10만 원 그리고 식비가 20만 원 정도인데 외식보다 식자재로 써요.
- 개인 부채/저축/세금 지불 상황은 어떠한가?: 학자금 대출이 480만 원 있는데 취업 후 상환해야 해요. 청약저축을 매달 2만 원씩 내고 인터넷 적금도 하는데 현재까지 150만 원 모았습니다.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 돈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은가?: 마다가스카르로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요. 꿈에서 뒤집혀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어느 날 TV에서 그게 바오밥나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로망이 되었어요. 언젠가는 그곳에 가서 꼭 직접 보고 싶어요.

③ 진로 관리

- 학업·취업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대학생이고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제가 자라온 배경 때문인지 보육원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 어떤 일을 해 보았는가?: 홀 서빙 아르바이트, 액세서리 판매, 월드비전 길거리 모금 그리고 부천 희망재단 사업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 직장생활에 만족하는가?: 현재 대학생입니다. 솔직히 공부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론 중심이고 시험을 보는 것은 저하고 잘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4학년이라서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따는데, 전 1급까지 따려고 해요.

④ 정서 관리

-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고,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가?: 남자친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요. 저희는 같은 과이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일주일 내내 거의 같이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이자 과 선배구요. 솔직히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그의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가까이 보게 되면서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이 들기도 했어요. 보통의 가정 경험이 저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또한 사회복지공부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 휴가나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읽곤 해요.
- 몸이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예전에 함께 지낸 생활지도 선생님 혹은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요.
- 특정 종교가 있는지?: 기독교입니다.
-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지?: 대학 시절 두 번 정도 더 있었어요.

(2) 주거 여정(공간/커뮤니티 케어 측면)

① 전반적 사항

- 지금까지 경험한 거주공간의 개수와 유형은 어떠한가?: 총 7번 정도나 거쳐 갔어요. 아파트, 영구임대주택, 보육원, 자립관, 생활지도 선생님 댁 빌라, 내임대주택 그리고 현재는 내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 가장 좋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지?: 생활지도 선생님 집에서 함께 지낼 때가 가장 좋았어요. 처음으로 개인공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었고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살면서 요리도 배울 수 있었어요. 당시 19살이었는데, 선생님과 1년 정도 함께 지내면서 독립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 가장 좋지 않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가?: 자립관이에요. 이곳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저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무조건 나가서 저녁 6시 이후 귀가할 수 있었어요. 같이 지내는 언니들은 직장인이라 집에 오면 피곤해하고 소통이 별로 없어서 공감대가 생기기 어려웠어요. 또한 개인공간이 없어서 불편했어요. 한 방에 4~6명이 함께 지냈거든요. 보육원에서는 한 방에 2명이 지냈는데, 그곳보다도 훨씬 별로였어요. 게다가 등하교 시 교통이 불편해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요. 당시 보육원에 자체 자립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두 달 반 정도 지냈습니다.
- 향후 어떤 집에서 거주하고 싶으신지?: 내 집 마련이 목표예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서 아무래도 집에 애착이 커요. 2~3개의 침실과 거실로 구성되고 화이트 톤에 미니멀하게 꾸미고 싶어요. 이곳에서 가정을 꾸려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② 퇴소 전 주거 경험

① 생애 최초 거주 공간(보육원)

- 지역/형태/기간/운영주체/규모와 인원은 어떠했나?: 인천에 있는 보육원에서 7살까지 살았어요. 13명이 함께 지냈고 여학생만 있었어요.
- 공간은 어떠했나?: 개인공간은 없고 한 방에 5~6명이 같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은 주로 1~3층을 사용했어요. 3층은 주로 고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1인실과 2인실이 있었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했어요. 2층의 방은 이층 침대 2~3개가 있었고, 책상은 개인당 하나씩 사용하고 옷장은 공유했어요. 침대는 큰 언니들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잤어요. 공용공간은 부엌,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밖에는 베란다. 창고와 선생님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탁구대가 있어서 가끔 탁구를 치기도 했어요.

- 커뮤니티 케어 측면은 어떠했나?: 한 방에 2명, 선생님이 교대로 돌봐주셨어요.
- 프로그램은 있었는지: 아침은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식당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거실로 가져와서 같이 먹었어요. 가끔씩 라면 같은 야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요리 강습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밖에 경제 교육 프로그램(투자 개념/자립할 때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법/자립 정보북), 소방 프로그램, 특전사 프로그램(잔싸사이티입), 서당 프로그램, 사당의 등반대회, 여행 프로그램(태안), 해외 연수 프로그램(미국 동부) 등 굉장히 많았어요.
- 생활 규칙은 무엇이 있었나?: 밤 11시에는 모두 완장선생님 명의로 된 휴대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물론 자기 전에 떠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식사를 잘 안하면 간식을 못 먹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거나 하는 벌칙이 있었어요. 한 달에 1만 2천 원을 받았는데 1천 원은 자치회비. 2천 원은 저금 그리고 1천 원을 십일조로 내고 나면 남은 돈이 8천 원이었어요. 청소는 돌아가면서 작업 했어요.
- 즐거운 경험과(Joy point) 어려운 점은(Pain point) 무엇이었나?: 친구들과 같이 살 수 있었다는 점이 그래도 좋았어요. 하지만 개인공간이 없었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지내기 좀 힘들었어요. 어른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인데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신경을 써주시기가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어요.

③ 퇴소 후 주거 경험

① 퇴소 후 거주 공간_1(선생님 댁 동거)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인천 부평구의 빌라에서 선생님과 함께 살았는데 침실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베란대로 구성되어 있었어

요. 그리고 수고양이 1마리도 함께 키웠어요.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선생님이 전세금 5천만 원을 내시고 전 다달이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냈어요. 배려해 주셔서 부담 없었어요.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만족도 좋은 편이었어요. 개인공간이 있었고, 지하철로 20분 내로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집에 어른이 있는 것이 좋았는데 의지가 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웃들과의 소통은 없었지만 주변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편리했어요. 반면, 빌라촌이라 골목이 많았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혼자 다니기에 무서웠어요.
- 정부지원이나 정부 외 지원이 있었나? 주거 안정도는 어떠했나?: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생계비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국가 장학금과 겨자씨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았어요. 이곳에서는 1년 정도 자랐고 안정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 입주 정보 취득 과정은 어떠했는지?: 같은 보육원에서 있었던 친여동생이 퇴소하게 되어 선생님과 함께 내임대 주택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보육원 사절 함께 자낸 선생님이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40대 이시고, 여전히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㉞ 퇴소 후 거주 공간_2(LH 영구임대 아파트)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인천 연수구에 있는 방 1개, 거실, 화장실, 주방, 베란다로 구성된 아파트에 친동생랑 둘이서 살고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8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여서 침실은 제가 쓰고 거실을 동생이 썼어요. 현재는 동생이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실은 고양이 두 마리가 차지했어요.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영구 임대 아파트로 보증금 230만 원에 관리비가 전기세와 수도세를 포함해서 7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 원을 면제받아 3만 원만 내고 있어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매우 만족해요. 비용이 저렴하고 주거 환경, 교통편, 개인공간,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좋아요. 지하철 근처라 30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해요. 그런데 화장실은 좀 그래요. 누런색이라 낡은 느낌이고요.
- 정부지원이나 정부 외 지원이 있었나? 주거 안정도는 어떠했나?: 기초생활수급자로 50만 원을 받고 생계 장학금 50만 원도 받고 있어요. 보육원 퇴소할 때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주로 생활비로 쓰고, 독립할 때 전자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어요. 이곳은 총재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계속 머물 수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 입주 정보 취득 과정은 어떠했는지?: 주민센터를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정보가 많거든요. 사회복지전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게 되네요. 임대아파트 관련 신청서도 주민센터에서 보고 신청한 거예요.

(3) 요약

[표 3-6] 퇴소 전 주거 여정_퍼소나 B

구분	주거 경험 1
지역/기간	• 인천 남동구 만수동/7살까지 거주
규모/구성	• 3층 건물/한 방에 여학생 13명이 함께 생활
공간 (개인/공용)	• 개인: 커다란 홀에 이불을 깔고 함께 자다가 추후 한 방에 5~6명 거주. 중학생은 주로 1~2층, 고등학생은 3층을 사용. 이층 침대 2~3개가 있고, 책상은 1인 당 1개 사용하고 옷장은 공유 • 공용: 부엌, 거실, 화장실, 베란다 (탁구대)
커뮤니티	• 여자 보육 교사 2명이 케어
프로그램 규칙	• 요리 강습, 경제 교육, 소방, 특전사, 사랑의 등반대회, 국내 여행 및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밤 11시에 휴대폰 반납하고 취침 시 떠들면 안 됨. 식사를 잘 안하면 간식을 못 먹기도 하고 청소는 순서대로 함
터치 포인트	• Joy: 친구들과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음 • Pain: 개인공간이 없고, 애들이 많아서 보육 선생님이 개인별로 일일이 신경을 쓰기 어려움

[표 3-기]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B

구분	주거 경험 1	주거 경험 2
거주 지역	· 인천 인천구 부평동	· 인천 연수구 연수동
주거 유형	· 다세대 주택	· 아파트 (1H 영구 임대)
기간/동거인/규모	· 1년/생활지도 선생님과 거주/침실 2개, 거실/주방 배란다	· 1년 미만/친동생 고양이 2마리/8평 (침실 1개)
임대료/주거비 부담	· 선생님이 전세금 5,000만 원 생활비만 10만 원/부담 없음	· 보증금 230만 원에 이자 3만 원/부담스럽지 않음
주거 만족도 (구체 요소)	· 만족 요소: 개인공간이 있고 교통 편리, 집에 어른이 있어 보호 받는 느낌 · 불만족 요소: 골목이 어두워 밤길이 두려움	· 주거 만족도: 매우 만족 · 만족 요소: 개인공간이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편리함 · 학교 통학 30분 이내로 편리 · 불만족 요소: 화장실이 오래됨
주거 안정도	· 친동생의 보육원 퇴소로 1년 후에 이사함	· n/a
입주 정보 취득 과정	· 생활지도 선생님이 1H 임대 주택을 함께 찾아줌	· 주민센터 자주 활용
재정 관리 (수입/지출)	· 수입: 120~1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생계장학금 50만 원, 조교 월급 20~30만 원) · 지출: 50만 원 (교통비, 통신비, 식비 순) · 저축: 청약 저축과 인터넷 적금하고 있음	

3) 조사 내용_퍼소나 C

“이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마당도 있는 집이면 좋겠어요.”

(1) 일반적 사항

① 기초 사항



- 성별: 남
- 연령 (만) : 20세 (98년생)
- 퇴소 시기/연령: 2017년 3월/18세
- 현재 소속: 휴학생 (아르바이트)
- 현재 거주 지역: 서울 은평구

② 재정 관리

- 월수입/월 지출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주 됐고 첫 월급을 기다리고 있어요. 평균 지출은 약 60만~7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주요 지출 내역은 통신회비 8만 5천 원, 생활비가 7만 원, 그리고 교통비 등등이에요.
- 개인 부채/저축/세금 지불의 상황은 어떠한가?: 부채도 세금도 없어요. 그리고 500만 원 자립 지원금은 대전에 있을때 월세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디딤씨앗 통장이 있는데 24살 이후에 쓸 수 있다고 해요.
- 돈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은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바다가 있는 해외로 가고 싶은데 동남아나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③ 진로 관리

- 학업·취업 상황은 어떠한가?: 외식조리전공인데 현재 학교를 휴학 중입니다. 졸업 후에는 무슨 일을 할지 고민 중 이에요.
- 어떤 일을 해 보았는가?: 결혼식 연회 서빙, 돈가스 식당 주방일, 프랜차이즈 식당 주방일 등을 했어요.

④ 정서 관리

-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고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가?: 동거하고 있는 형과 지원단체 선생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볼링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 휴가나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보통 PC방에 주로 가요. 요즘은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주로 봐요.
- 몸이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이것도 지원단체 선생님들께 연락할 것 같아요.

-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지: 중학교 때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같게 사귀지는 않았어요.

(2) 주거 여정 (공간/커뮤니티 케어 측면)

① 전반적인 사항

- 지금까지 경험한 거주공간의 개수와 유형은 어떠한가?: 아기였을 때는 부산에 있었는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의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퇴소한 후 대전으로 가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지금은 선배 형이랑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 가장 좋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지?: 대전의 원룸에서 혼자 살 때가 제일 좋았어요.
- 가장 좋지 않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의 보육원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방에 다 같이 자내다가 4인 1실로 변경되었거든요.
- 향후 어떤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지?: 이층 단독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마당도 있는 집이면 더 좋겠어요.

② 퇴소 전 주거 경험

① 생애 최초 거주 공간(보육원)

- 지역/형태/기간/운영주체/규모와 인원은 어떠했나?: 서울 은평구의 보육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냈어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한 500명 정도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7층 건물이 3동 정도 있었고 여자 생활관, 남자 생활관이 따로 있었어요. 한 방에 10~12명 정도 있었는데 반마다 선생님 두 분씩 교대로 근무하셨어요.
- 공간은 어떠했나?: 침실은 4명이 방 하나를 사용해서 2층 침대가 2개씩 있었고, 책상도 2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옷장은 각자 한 칸씩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리고 공부방도 있었지만, 거실 식탁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 밖에 주방, 화장실, 강당, 체육관, 운동장이 있었어요.

- 커뮤니티 케어 측면은 어떠했나?: 보육사 선생님 2명이 교대 근무하면서 관리해주셨어요.
- 프로그램은 있었는지?: 국영수 학원도 갈 수 있었고, 요리학원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이나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 엄청 많았어요.
- 생활 규칙은 무엇이 있었나?: 5시까지 귀가를 해야 했고, 청소는 각자 했어요. 식사는 주방에서 준비해주셨고, 반별로 알아서 식사했어요. 그리고 용돈은 한 달에 1만 5천 원을 받았는데 PC방 가면 금방 쓰게 되었죠.
- 즐거운 경험과(Joy point) 어려운 점(Pain point) 무엇이었나?: 넓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서 좋았어요. 농구를 주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귀가 시간 벌점이 싫었고, PC방 다니는 것이 어려웠어요.

③ 퇴소 후 주거 경험

① 퇴소 후 거주 공간_1(학교 근처 자취)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대전에 있는 원룸 2층에서 혼자서 살았어요. 방 크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를 35만 원 씩 냈어요. 거기서 한 10개월 지냈는데, 월세가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 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주거 만족도는 보통 정도였어요. 개인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좋았고 비용은 부담스러웠어요.
- 정부지원이나 정부 외 지원이 있었나? 주거 안정도는 어떠했나?: 기초 생활 수급자로 60만 원 받고 있어요.
- 입주 정보 취득 과정은 어떠했는지?: 아는 어른과 함께 부동산을 통해 집을 들

리보고 결정했어요.

㉔ 퇴소 후 거주 공간_2(선후배 동거)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서울 은평구의 빌라에서 선배 형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방 2개, 주방, 화장실이 있고 베란다를 창고로 쓰고 있어요.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LH 임대주택으로 전세 2년 계약 했고,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7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요.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주거 만족도는 보통이에요. 집이 낡고 오래 되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어요.

(3) 요약

[표 3-8] 퇴소 전 주거 여정 피조사 C

구분	주거 경험
지역/기간	· 서울 은평구 응암동/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주
규모/구성	· 7층 건물 3동/약 500명
공간 (개인/공용)	· 개인: 침실은 4명이 함께 사용, 2층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은 각자 1개씩 사용 · 공용: 공부방, 주방, 화장실, 강당, 체육관, 운동장
커뮤니티	· 보육 교사 2명이 교대 근무, 한 반에 10~12명의 학생
프로그램 규칙	· 여행 프로그램, 국영수학원과 요리학원도 다닐 수 있으며,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 운영 · 귀가 시간이 오후 5시이며 청소는 각자 했음
터치 포인트	· Joy: 넓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서 좋았으며, 농구를 자주 할 수 있었음 · Pain: 귀가 시간 벌점이 있었으며, PC방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음

[표 3-9]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C

구분	주거 경험 1	주거 경험 2
거주 지역	• 대전시 자양동	•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거 유형	• 원룸	• 다가구 주택(1H 지원 주택)
기간/동거인/규모	• 10개월/없음/원룸	• 1년 미만/선배 1명/10평 이상(침실 2개)
임대료/주거비 부담	•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부담스러움	• 선배와의 동거로 생활비 7만원 지불/부담스럽지 않음
주거 만족도(구체 요소)	• 주거 만족도: 보통 • 만족 요소: 개인공간이 있음 • 불만족 요소: 월세 부담감	• 주거만족도: 보통 • 만족 요소: n/a • 불만족 요소: 집이 낡아서 불편하지만 별로 신경 안씀
주거 안정도	• 대학교 휴학으로 이사	• n/a
입주 정보 취득 과정	• 지인 도움으로 함께 알아봄	• n/a
재정 관리(수입/지출)	• 수입: 알바 시작한 지 3주 되어 첫 월급을 기다리는 중 • 지출: 약 60~70만 원(통신비>생활비>교통비) • 저축: 없음. 디딤돌 씨앗 통장은 있음(24세 이후 사용 가능)	

3) 조사 내용_퍼소나 D

“원룸에 혼자 살고 싶어요. 개인공간이 보장되고 공용공간이 잘 갖춰 있
다면 셰어하우스 생활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일반적 사항

① 기초 사항



- 성별: 남
- 연령(만): 18세(1999년생)
- 퇴소 시기: 2018년 2월 중간 퇴소/18세
- 소속: 고등학교 3학년(아르바이트)
- 현재 거주 지역: 서울 서대문구

② 재정 관리

- 월수입/월 지출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6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아르바이트로 45~80만 원 정도 버는데 최근에 입시 준비로 그만두었습니다. 평균 지출은 월세를 제외하고 약 50만 원입니다. 그밖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40만 원을 쓰고 있어요.
- 개인 부채/저축/세금 지불 상황은 어떠한가?: 개인 부채가 약 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퇴소 후에 자립지원금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해서 월세를 낼 수 없어 급한 마음에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제외한 돈은 모두 통장에 넣어두고 있으며 세금은 없습니다.
- 돈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은가?: ‘집’을 사고 싶습니다. (웃음) 너무 심했나요? 이 외에는 사고 싶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③ 진로 관리

- 학업·취업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 어떤 일을 해 보았는가?: 고3이지만 빚을 갚아야 해서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달 해봤습니다. 입시 준비하기도 벅차지만 부득이 해야 했습니다.
-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가?: 네, 콜센터는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친절해야 하고 목소리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 관리자에게 꾸중을 듣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 직장생활에 만족하는가?: 전혀 그렇지 못해서 최근 그만 두었어요.

④ 정서 관리

-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고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가?: 주로 혼자 있고 참여하

는 별다른 모임도 없어요.

- 휴가나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주로 공부를 합니다.
- 몸이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퇴소 이후에 다행히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도움이나 의논 상대가 필요할 때 후원 재단의 대표님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 특정 종교가 있는지?: 천주교 산하의 시설에서 자랐기에 당연히 천주교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지?: 없습니다.

(2) 주거 여정 (공간/커뮤니티 케어 측면)

① 전반적 사항

- 지금까지 경험한 거주공간의 개수와 유형은 어떠한가?: 유아기와 유치원 시기에는 부산의 보육원에서 거주했습니다. 한 공간에 12명이 거주했는데 큰 홀이 참살이자 거실, 주방이었어요. 2층 침대가 6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의 보육원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고학년 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공간과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립 전 준비 단계로 인근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여기는 자립 연습을 위해 고3들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방 3개의 아파트로 한 방에 1~2명 씩 총 5명이 함께 거주했는데 저는 3개월 쯤 있었고, 보통은 1년까지 가능해요.
- 가장 좋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지?: 고3 자립 준비기간 동안 잠깐 거주했던 아파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 서 소수의 친구와 함께 거주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가구 등이 최신 용품이라서 깨끗해서 좋았어요.

- 가장 좋지 않은 거주 경험을 준 공간과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의 시설은 리모델링 하기 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방 옆에 없고 한 층의 복도 제일 끝에 있었고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단체 생활이 좋았지만, 중학교부터는 개인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 향후 어떤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지?: 원룸에서 살고 싶어요. 혼자 살아보고 싶거든요. 또 요리를 직접 해보고 싶지만 지금 고시원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니 쉽지 않고, 재료를 다 사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개인공간은 보장되고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면 셰어하우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② 퇴소 전 주거 경험

① 생애 최초 거주 공간 (보육원)

- 지역/형태/기간/운영주체/규모와 인원은 어떠했나?: 부산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큰 시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현재는 폐교되었지만 시설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있었으니까요.
- 공간은 어떠했나?: 개인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어요, 큰 홀에 옷장을 여러 개 붙여서 파티션같이 세우고 한쪽으로는 2층 침대를 6개 붙여서 함께 잤어요. 아기들은 아기들끼리,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끼리 잤어요. 반대편에는 주방이 있고 엄청 긴 식탁이 2개가 있어서 그 곳에서 밥을 먹고 책도 보고 놀기도 했어요. 또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이 많이 있었어요.
- 커뮤니티 케어 측면은 어떠했나?: 한 층에 12명이 같이 있었는데, 수녀님 및 혹은 보육사 선생님이 돌봐 주셨어요.
- 프로그램은 있었는지?: 봉사자들,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가 기억에 남아요.
- 생활 규칙은 무엇이 있었나?: 생활규칙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TV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전원을 내렸어요. 평일과 주말의 기준이 달랐는데, 주말은 8시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규칙은 방송으로 나오는데 7시 30분에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식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즐거운 경험과(Joy point) 어려운 점은(Pain point) 무엇이었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큰 잔디마당이 있었는데 그 곳도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규칙이 많은 것이 좋지 않았어요. 어렸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고, 시설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있었기 때문에 규칙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선택권이 없는 것은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⑧ 퇴소 전 거주 공간_1 (보육원)

- 지역/형태/기간/운영주체/규모와 인원은 어떠했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낸 서울의 보육원은 한 담벼락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함께 있는 타입으로 부산과 유사합니다. 규모가 커서 인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건물 세 개 중 한 개는 남자들 숙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들 숙소였습니다. 한 건물은 5~6층이 넘어 총 600명 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 공간은 어떠했나?: 한 모듈에 방이 3개이고, 방마다 2층 침대가 있어서 두 명은 침대에서 자고 나머지 한 명은 바닥에서 잤습니다. 화장실은 샤워기가 3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공용 욕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 명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동전 야구장 등이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했고 도서관도 있었어요.
- 커뮤니티 케어 측면은 어떠했나?: 보통 아이들은 10~12명 단위로 함께 어울립니다. 수녀님과 보육사 선생님이 함께 돌봐주셨는데, 보육사 선생님은 같은 보육시설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 프로그램은 있었는지?: 정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마다 축제가 있었는데 큰 운동장에서 생활실별로 공연을 스스로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바자회 및 장터도 운영했습니다. 이 때 나온 수익금은 모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큰 기업에서는 매해 7월 말에 놀이공원을 1박 2일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 생활 규칙은 무엇이 있었나?: 생활 규칙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깐 규칙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라면서 이게 맞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생활 규칙에 따른 계급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총 5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1단계가 가장 낮고, 5단계가 가장 높는데 2단계에서 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PC방에 오래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학교에 가지 않는 등의 행위는 계급을 낮추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생활 차원에서 ‘핸드폰은 7시까지’, ‘외출시간은 7시까지’ 등의 규칙이 있었는데 계급이 높을 경우에는 보상 차원에서 시간을 더 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 즐거운 경험과(Joy point) 어려운 점(Pain point) 무엇이었나?: 이 시기에 제일 좋았던 점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이 항상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운동 시설이 많아서 수영, 농구 등을 원할 경우에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너무 많은 것은 자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단체 생활에서 벗어나 개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③ 퇴소 후 주거 경험

① 퇴소 후 거주 공간_1 (자립지원주거)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퇴소하기 전에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한 3개월 정도 포레 5명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23~24평정도 되는 공간에 방이 3개 있었습니다.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별도로 내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집 같은 공간이 좋았습니다. 그중 침실 사용이 좋았는데, 예전에는 단체로 침실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한 방에 1~2명이 사용할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면에 요리하고 식사하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매주 15만 원의 식비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장을 보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생소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셔도 쉽지 않았습니다.
- 정부지원이나 정부 외 지원이 있었나? 주거 안정도는 어떠했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립준비주택이었고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정보 취득 과정은 어떠했는지?: 보육원에서 알려주셨어요.

㉞ 퇴소 후 거주 공간_2 (고시원)

- 지역/주거유형/기간/동거인 수/규모는 어떠했나?: 지금은 중간 퇴소를 해서 서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 있습니다. 3~4층의 단독 건물로 약 20명이 함께 사는데, 개인공간은 2평 남짓하고 공동 주방이 있습니다.
- 주택 점유형태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증금은 5만 원이지만 월세는 37만 원으로 꽤 부담스럽습니다.
- 주거 만족도는 어떠했고, 만족·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 주거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사실 만족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것이 그나마 만족하는 요소입니다. 모든 부분이 비용대비 별로입니다. 개인공간이 너무 작고 월세는 너무 비쌉니다. 이 공간에서는 현재 잠만 잡니다. 또한 여기는 40~50대 아저씨들이 많은데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이나 복도에서 만나면 어렵

고 불편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집에 더 늦게 들어가게 되요. 6개월 아내 이주하고 싶습니다.

- 정부지원이나 정부 외 지원이 있었나? 주거 안정도는 어떠했나?: 약 5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월세를 충당하고 있어요.
- 입주 정보 취득 과정은 어떠했는지?: 먼저 시설을 퇴소한 형이 거주하던 고시원을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까워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3) 요약

[표 3-10] 퇴소 전 주거 여정 퍼소나 D

구분	주거 경험 1	주거 경험 2
지역/기간	· 부산/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 서울/초등학교~고등학교 졸업
규모/구성	· 여러 개의 건물	· 큰 건물 세 동/약 600명
공간 (개인/공용)	· 개인: 큰 홀에 옷장 여러 개 붙여서 파티션같이 세우고 한쪽으로는 2층 침대를 6개 이어서 함께 지냄 · 공용: 주방, 운동장, 체육관	· 개인: 한 모듈에 방이 3개, 방마다 2층 침대가 있어서 두 명은 침대에서 자고 나머지는 바닥에서 잤음 · 공용: 화장실, 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야구장, 도서관 있음
커뮤니티	· 보육 교사가 아동 12명 케어	· 보육 교사가 10~12명 케어
프로그램 규칙	· 봉사자들,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행사 존재 · 규칙이 많았음. TV 보는 시간, 공부 시간, 기도 시간 등이 있었음	· 큰 운동장에서 공연을 스스로 기획 해서 진행, 요리, 바자회 및 장터도 운영 · 생활규칙에 따른 계급을 만들어서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캠페인이 있었음
터치 포인트	· Joy: 친구들과 놀이터, 수영장에 가는 것이 제일 좋았음. 큰 잔디 마당도 즐기는 장소였음 · Pain: 규칙이 많은 것이 좋지 않았음. 선택권이 없음	· Joy: 친구들과 항상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으며, 운동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서 즐거웠음 · Pain: 규칙이 너무 많은 것이 부담스러웠음

[표 3-11] 퇴소 후 주거 여정_퍼소나 D

구분	주거 경험 1	주거 경험 2
거주 지역 주거 유형	· 서울 은평구 응암동 · 아파트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 고시원
기간/동거인/ 규모	· 3개월/5명/23평	· 6개월 미만/20명/2~3평
임대료/ 주거비 부담	· 무상 (자립 전 준비 단계)	· 보증금 5만 원, 월세 37만 원/ 약간 부담스러움
주거 만족도 (구체 요소)	· 주거 만족도: 만족 · 만족 요소: 침실 당 1~2인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음 · 불만족 요소: 식사 문제로 예전에는 식사 준비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주 15 만원의 비용으로 스스로 해결 해야 했음	· 주거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만족 요소: 만족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나 학교와 가까움 · 불만족 요소: 방이 좁고 월세가 비쌌. 주로 40~50대 남자들이 계셔서 되도록 피해야 하는 것 같음
주거 안정도	· 1년 이내 이주 필요	· 6개월 이내 이주 원함
입주 정보 취득 과정	· n/a	· 먼저 사설을 퇴소한 형이 거주 하던 고시원을 소개시켜 주었음
재정 관리 (수입/지출)	· 수입: 약 100~1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콜센터 아르바이트 45~80만 원) · 지출: 약 50만 원 (월세>식비>교통비) · 저축: 지출을 제외한 모든 돈은 통장에 예금	

3_주생활 일기(Diary & Essay)

1) 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주거 내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기술방식으로 생활일기를 작성해 주거 여정 지도에서 도출되기 어려운 감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식: 개별 작성(과제)

(3) 조사 내용: 주중과 주말에 주거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 행위를 즐거운 점, 불편한 점, 불쾌한 점 등의 감정과 연계해서 일기를 작성하였다.

2) 조사 내용_퍼소나 A

(1) 평일 일기

아침 8~9시경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씻으러 갑니다. 화장실은 창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추운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5분 정도 온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씻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화장실에 세탁기까지 있어 샤워 후에 몸을 닦는 것이 불편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한 후 따뜻한 집을 기대하며 돌아오지만 현관문이 벌어져 있어서 집 내부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난방을 켜고 방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불 속에 있습니다. 다행히 후원자를 통해 좋은 침대를 받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내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니 집주인 분께서 새로 해 주셨다는 벽지가 뜯어져 있어 심난하지만 잠을 청합니다.

(2) 주말 일기

주말에는 늦잠을 자기 때문에 12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밤새 보일러를 틀어 놓았기 때문에 바닥은 따뜻하지만 우풍이 심합니다. 게다가 바깥쪽 벽의 벽지에는 축축하게 물기가 젖어 있어 곧 곰팡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약속이 있는 날은 밖으로 나가지만 없으면 종일 집에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주말 내내 이불 안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불 속에서 영화나 게임 영상을 보면 금방 주말이 지나갑니다.



[그림 3-2] 주거 현황 사진 퍼소나 A

3) 조사 내용_퍼소나 B

(1) 평일 일기

학교를 다니거나 일정이 있는 날은 보통 8시 30분에 기상합니다. 그리고 곧장 베란다 창문을 엽니다. 열지 않으면 베란да에 있는 고양이 화장실 냄새가 온 집 안을 휘감기 때문에 꼭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밥과 물 그리고 간식을 줍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먹고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8시 40분쯤 거실에서 스킨트를 합니다. 이후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30분 정도 식사를 합니다. 외출을 위해 화장실에서 씻고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화장을 20분 정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 거실에 나와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출 전 주방이나 방 앞의 쓰레기를 들고 나갑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서 고양이들에게 밥과 물 그리고 간식을 줍니다. 샤워를 15분 정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방에서 스킨, 로션을 발라주거나 팩을 합니다. 거실에서 스킨트를 합니다. (팩을 할 때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거지를 합니다. 방에서는 게임, 과제, 독서, 음악 감상, 스트레칭, 취미활동을 하곤 합니다. 밤 12시에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거나 통화를 한 후 잠에 듭니다.

올해 초에 함께 살던 동생이 일본으로 떠나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여자 혼자 산다는 두려움 즉,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 어두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 대한 외로움입니다. 벌써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도 잘 적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주말 일기

주말에는 보통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교회에 갑니다. 평일과 같이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고양이들에게 밥, 물, 간식을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고양이들

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런 약속이 없어 집에 머무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우울하거나 매우 게을러지고, 처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10시쯤 기상해서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그 후 거실에서 고양이들과 놀면서 TV를 본다거나 독서, 취미활동, 음악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3시쯤 점심 겸 간식을 먹고, 똑같이 놀다가 7시쯤 저녁을 먹습니다.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혼자 방 앞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 밖에 나가 버린 후에 산책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취미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을 한 후 1시쯤 잠에 듭니다.



[그림 3-3] 주거 현황 사진_퍼소나 B

4) 조사 내용_퍼소나 C

(1) 평일 일기

아침 9시쯤 일어나서 씻고 핸드폰 좀 보면서 누워서 텅굴거리다가 옷 입고 10시쯤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해서 11시쯤 도착합니다. 저녁 8시 정도에 퇴근하는데 집이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힘듭니다. 집에 9시쯤 도착해서 샤워를 합니다. 화장실에 세탁기도 있어서 좁고 세면대도 없고 샤워기도 망가져서 불편합니다. 빨래를 돌리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영화와 영상 등을 보다가 선배 형이랑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게 되는 이유는 주로 빨래, 설거지 등 집안

일 때문입니다. 같이 자내는 것이 재밌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전에는 방을 같이 썼는데 지금은 작은 방을 따로 써서 좀 편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쉬다가 1시 넘어서 잠을 청합니다. 집에서 특히 불편한 곳은 창고로 쓰고 있는 베란다인데 물건이 정돈이 되지 않아 심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춥고, 집이 너무 낡았고, 방음이 안 되고 계다가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또한 집이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불편하고 벌레가 가끔 들어오기도 하고 환기가 잘 안됩니다.

(2) 주말 일기

주말에는 늦잠을 자다가 12시 넘어서 겨우 일어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놀다가 약속이 있으면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가끔은 PC방에 가기도 합니다. 주말에 할 것이 없으면 집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세탁을 하는 등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지만 재료도 없고 주방도 불편해서 요리를 안 하게 됩니다. 거의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 아니면 시켜서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림 3-4] 주거 현황 사진_퍼소나 C

5) 조사 내용_퍼소나 D

(1) 평일 일기

6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아침에 대충 준비를 하고 등교합니다. 학교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거의 12시가 됩니다. 배가고프면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들고 올라와서 방에서 먹고 다시 주방에 내려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까지 왔다가 갔다가 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또한 대충 먹고 씻고 자는데 씻을 때 온수가 끊길 때도 있어서 찬물로 씻어야 하는 날도 가끔 있습니다.

1시가 되면 잠을 자는데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지 않아서 냄새가 납니다. 매우 불쾌하긴 한데 페브리즈를 뿌리고 자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으면 부채질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는데 최근에 미니 선풍기를 사서 좀 나아졌습니다.

(2) 주말 일기

토요일에는 8시 30분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10시쯤 외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오면 자고 일요일에 그 곳으로 다시 가야하기 때문에 집에 가기가 귀찮을 때는 그냥 공부하던 장소에서 새우잠을 자고 일어나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말에 거의 집에 없기 때문에 빨래를 돌리면 널 시간이 없습니다. 욕상에 빨래를 넣고 나와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이다 보니 담배도 많이 피우고 냄새가 나서 싫고 가끔 마주칠 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림 3-5] 주거 현황 사진_퍼소나 D

4_주거 현황과 요구

1) 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가. 현재 거주하는 주거에서 공간-커뮤니티 측면의 잠정적인 측면(Touch point = Pain & Joy)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주거 생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나.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이 희망하는 가까운 미래의 커뮤니티 하우스 공간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워크숍

가. 피소나는 주거 공간을 경험하는 여정을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당시 느꼈던 감정을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 내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유한다.

나. 가까운 미래 커뮤니티 하우스에 약 2년 함께 거주하는 것을 상상하며 주거 생활 행위별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3) 조사 항목

가. 주요 행위, 시간대, 공간/시설, 운영/커뮤니티, 감정/원인 등을 작성한다.

나. 주요 행위는 하단의 ‘주생활 행위 세분화’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중의 출근/등교 전은 기상, 위생 (배뇨, 배변), 샤워/세면, 헤어드라이, 착의, 식사준비, 식사, 가정 관리, 화장/휴식, 출근 등의 행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퇴근/하교 후는 귀가, 탈의/착의, 세면/위생 (배뇨, 배변), 식사 준비, 식사/휴식, 음식 관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시설 관리, 휴식/학습, 취침 등 중에서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표 3-12] 퍼소나 리서치 주생활 행위별 기준

구분	항목	
개인 관리	수면	취침~기상
	위생/외모	세면, 샤워/목욕, 위생, 헤어드라이, 화장, 착의/탈의
	식사	아침/점심/저녁 식사, 간식/음료 섭취
	휴식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일/학습	업무, 부업, 구직활동, 학업, 자습
이동	통근/통학	현관-복도-엘리베이터/계단-리셉션-출입구-외부
가정 관리	음식 관리	요리, 설거지, 식후 정리, 장보기, 쇼핑
	의류 관리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정리, 다림질
	청소/시설 관리	개인&공용공간 청소, 쓰레기 배출, 시설 관리
교제 여가	동거인 교제	대화 및 시간 보내기, 진로상담
	미디어 이용	TV 시청/영화 관람/음악 감상
	운동/여가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독서/게임/놀이/음주/가드닝 등
	기타	기타 활동

2) 조사 내용(주거 여정 지도)_퍼소나 A

[표 3-13] 개인 관리와 이동_퍼소나 A

		개인 관리					이동
		수면 취침~기상	위생/외모 세면 샤워/목욕 위생 헤어드라이 화장 착의/탈의	식사 3식 식사 간식 섭취	휴식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	일/학습 업무 부업 구직활동 학업/자습	통근/통학 출근/퇴근 등/하교
주중	순서	1	2	5	9	4	3
	시간	~08:00	09:00	12:00~13:00	~22:00	10:00~12:00	10:00
	공간	침실	욕실	학교 인근	침실/침대	학교	지하철
	감정 곡선	☺					
		☹					
		☹					
	주말	순서	1	2	3	7	
	시간	~11:00	12:00	13:00	~10:00		

	공간	침실	욕실	거실	침실		
감정곡선	☺						
	☹						
	☹						
Joy & Pain point (현황)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들다. 주말은 늦게 일어날 수 있어 좋다. 집이 너무 넓고 가끔 바퀴벌레가 출몰한다. 방음이 잘 안되서, 밤늦게 얘기할 경우 주변에서 항의를 한다. 거실 바닥에서 밥을 먹어야 해서 불편하다.					집에서 역이 멀어서 통학이 힘들다.

[표 3-14] 가정 관리 & 교제/여가 퍼소나 A

		가정 관리			교제/여가		
		음식 관리	의류 관리	청소 관리	동거인교제	미디어 이용	스포츠/취미
		요리 설거지 식후 정리 장보기/쇼핑	세탁물 수거 세탁하기 세탁물 널기 옷정리 다림질	방 청소 물품 정리 공용부 청소	대화/시간 보내기 진로 상담	TV 시청 영화 관람 음악 감상	산책 체력단련 독서 게임/놀이 음주
주중	순서		8			7	6
	시간		18:00			17:00	16:00~17:00
	공간		욕실			침실/등하교	볼링장/PC방
	☺						
	☹						
주말	☺						
	☹						
	☹						
	☺						
	☹						
Joy & Pain point (현황)		빨래를 건조시키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 주방이 협소해서 설거지하기가 어렵다. 침실이 협소해서 걸레질하기가 어렵다. 욕실이 너무 작고 세면대가 없고 세탁기는 있다. 샤워기의 수압이 너무 낮다.					동네에 같이 놀 곳도 별로 없다. 거실이 너무 작아서 TV를 두기가 어렵다.

3) 조사 내용(주거 여정 지도)_퍼소나 B

[표 3-15] 개인 관리 및 이동_퍼소나 B

		개인 관리					이 동
		수면	위생/외모	식사	휴식	일/학습	통근/통학
		취침~기상	세면 샤워/목욕 위생 헤어드라이 화장 착의/탈의	3식 식사 간식 섭취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	업무 부업 구직활동 학업/자습	출근/퇴근 등/하교
주중	순서	1	2	5	9	4	3
	시간	~08:00	09:00	12:00~13:00	~22:00	10:00~12:00	10:00
	공간	침실	욕실	학교 인근	침실/침대	학교	지하철
	감정 곡선	☺					
		☹					
	☹						
주말	순서	1	2	3	7		
	시간	~11:00	12:00	13:00	~10:00		
	공간	침실	욕실	거실	침실		
	감정 곡선	☺					
		☹					
	☹						
Joy & Pain point (현황)		침실에서 쉬거나 잘 때가 가장 좋다. 복도식 아파트라서 외부의 소음이 잘 들린다. 욕조가 없어서 아쉽다.					아파트 내부 가어두워서 무섭다.

[표 3-16] 가정 관리 & 교제/여가_퍼스나 B

		가정 관리			교제/여가		
		음식 관리	의류 관리	청소 관리	동거인교제	미디어 이용	스포츠/취미
		요리 설거지 식후 정리 장보기/쇼핑	세탁물 수거 세탁하기 세탁물 널기 옷정리 다림질	방 청소 물품 정리 공용부 청소	대화/시간 보내기 진로 상담	TV 시청 영화 관람 음악 감상	산책 체력단련 독서 게임/놀이 음주
주중 주말	순서	7, 10	8		12		
	시간	22:30~22:40	09:30~09:40		23:10~		
	공간	주방	발코니/세탁 거실/건조	발코니/거실 침실/복도		침실/거실	침실/거실
	감정 곡선	☺					
		☹					
Joy & Pain point (현황)		요리를 자주 하기가 쉽지 않다. 고양이들을 키워서 공기가 안 좋다.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한다. 화장실 환기가 잘 안되다. 배수관에서 물이 샌다. 베란다 벽에 곰팡이가 있어서 싫다. 집이 좁아 분리수거 정리가 힘들다. 현관문이 잘 안 닫혀서 추울 때가 있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 함께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적적하다.		

4) 조사 내용(주거 여정 지도)_퍼소나 C

[표 3-17] 개인 관리 및 이동_퍼소나 C

			개인 관리					이 동
			수면	위생/외모	식사	휴식	일/학습	통근/통학
			취침~기상	세면 샤워/목욕 위생 헤어드라이 화장 착의/탈의	3식 식사 간식 섭취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	업무 부업 구직활동 학업/자습	출근/퇴근 등/하교
주중	순서	1	2	3	4	7	6,8	
	시간	09:00				11:00~20:00	10:00/21:00	
	공간	침실/침대	욕실			아르바이트	버스/지하철	
	감정곡선	☺						
		☹						
		☺						
		☹						
주말	순서	1, 10	2	3	4, 9			
	시간	12:00	12:30~	수시	13:00			
	공간	침실/침대	욕실			아르바이트	버스/지하철	
	감정곡선	☺						
		☹						
		☺						
		☹						
Joy & Pain point (현황)		침대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휴식할 때가 가장 좋다. 방충망이 뜯어져서 창문을 닫고 사니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바닥 장판이 너무 지저분하다. 욕실이 너무 작아서 세면하고 샤워하기가 어렵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힘들다.	

[표 3-18] 가정 관리와 교제/여가_퍼소나 C

			가정 관리			교제/여가		
			음식 관리	의류 관리	청소 관리	동거인교제	미디어 이용	스포츠/취미
			요리 설거지 식후 정리 장보기/쇼핑	세탁물 수거 세탁하기 세탁물 널기 옷정리 다림질	방 청소 물품 정리 공용부 청소	대화/시간 보내기 진로 상담	TV 시청 영화 관람 음악 감상	산책 체력단련 독서 게임/놀이 음주
주중	순서		5		9			
	시간							
	공간				집			
	감정 곡선	☺						
		☹						
		☹						
☹								
주말	순서		5		6		7	
	시간		13:30		14:00		14:00	
	공간				집			
	감정 곡선	☺						
		☹						
		☹						
☹								
Joy & Pain point (현황)			집안일을 분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집안에 날파리나 모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요리를 하고 싶지만 주방이 너무 좁다.					

5) 조사 내용(주거 여정 지도)_퍼소나 D

[표 3-19] 개인 관리와 이동_퍼소나 D

			개인 관리					이 동
			수면	위생/외모	식사	휴식	일/학습	통근/통학
			취침~기상	세면 샤워/목욕 위생 헤어드라이 화장 착의/탈의	3식 식사 간식 섭취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	업무 부업 구직활동 학업/자습	출근/퇴근 등/하교
주중	순서	1	2	4		5	3	
	시간	01:00~06:30	06:30~07:00	12:30~13:30 18:00~18:30		17:00~18:00 18:30~23:00	19:10~20:10	
	공간	침실/침대	화장실			외부	버스/지하철	
	감 정 곡 선	☺						
		☹						
주말	순서	1	2	5		4	3	
	시간	01:00~08:30	08:30~09:00	12:00~13:00 18:00~19:00	중간 공부	10:00~12:00 13:00~18:00 19:00~23:00	09:00~10:00	
	공간				외부	외부	버스/지하철	
	감 정 곡 선	☺						
		☹						
Joy &Pain point (현황)		씻을 때 다른 방에서 온수를 많이 쓰면 온수가 끊긴다. 집에 가면 거의 12시 인데 집에 가면 잠만 자게 된다. 침실 옆에 화장실이 있어 냄새가 난다. (문 없는 화장실) 침실이 너무 작고 덥고 환기가 안된다.					학교/학습실 /집의 이동 이 많다.	

[표 3-20] 가정 관리와 교제/여가_퍼소나 D

		가정 관리			교제/여가			
		음식 관리	의류 관리	청소 관리	동거인교제	미디어 이용	스포츠/취미	
		요리 설거지 식후 정리 장보기 &쇼핑	세탁물 수거 세탁하기 세탁물 널기 옷정리 다림질	방 청소 물품 정리 공용부 청소	대화/시간 보내기 진로 상담	TV 시청 영화 관람 음악 감상	산책 체력단련 독서 게임/놀이 음주	
주중	순서							
	시간					Any time		
	공간					이동 /집		
	감정 곡선	☺						
		☹						
주말	순서							
	시간							
	공간							
	감정 곡선	☺						
		☹						
Joy &Pain point (현황)		공용주방에 친하지 않은 아저씨들이 많아서 피하게 된다. 세탁기를 공용으로 쓰는데 사용하기 꺼끄럽다. 옥상에 빨래를 널면 1층 고기집의 연기로 냄새가 번다.						

6) 현황/문제점과 문제점 종합

[표 3-21] 퍼소나 리서치 현황과 문제점 종합

퍼소나	개인 관리					이 동	가정 관리			교제 /여가		
	수면	위생/외모	식사	휴식	일/학습		음식 관리	의류 관리	청소 관리	교제	미디어	운동/취미
	취침 기상	세면 샤워/목욕 위생 헤어드라이 화장 착의/탈의	3식 식사 간식 음료 섭취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	업무 부업 구직활동 학업		출퇴근 등하교	요리 살거지 식후 정리 장보기	수거 세탁 세탁물 널기 옷정리 다림질	방 청소 물품 정리 공용부 청소	대화 진로 상담	TV시청 영화 관람 음악 감상
A	J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들지만, 주말은 늦게 일어나도 되서 좋다.										
	P	집이 너무 낡고 가끔 바퀴벌레가 출몰한다. 방음이 잘 안되서, 밤늦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항의를 한다. 거실 바닥에서 밥을 먹어야 해서 불편하다. 욕실이 너무 작고 세면대가 없는데, 세탁기까지 있어서 불편하다. 샤워기의 수압이 낮다.					집에서 역이 멀어서 통학이 힘들다.	빨래 건조 시키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 주방이 협소해서 설거지하기가 어렵다. 침실이 협소해서 걸레질하기가 어렵다.			동네에 같이 놀 또래가 별로 없다. 거실이 너무 작아서 TV를 두기 어렵다.	
B	J	침실에서 쉬거나 잘 때가 가장 좋다.										
	P	복도식 아파트라서 외부의 소음이 잘 들린다. 욕조가 없어서 아쉽다.					아파트 내부가 어두워서 무섭다.	요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가 많이 필요하다. 고양이들을 키워서 공간이 안 좋다. 바퀴벌레가 있다. 화장실 환기가 잘 안된다. 배수관에서 물이 샌다. 베란다에 곰팡이가 있다. 집이 작아 분리수거를 정리하기가 힘들다. 현관문이 안 닫혀서 좋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 함께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적절하다.	
C	J	침대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실 때가 가장 좋다.										
	P	방충망이 뜯어져서 창문을 닫고 사니 공기가 안좋다. 바닥 장판이 지저분하다. 욕실이 너무 작음데 세탁기도 놓여 있다. 세면, 샤워하기 어렵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힘들다.	집안 일을 분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집안에 날파리나 모기가 너무 많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요리를 하고 싶지만 주방이 너무 좁다.				
D	J											
	P	씻을 때 다른 데서 온수를 많이 쓰면 온수가 끊긴다. 집에 가면 거의 12시여서 집에서 잠만 자게 된다. 침대 옆에 문없는 화장실이 있어 냄새가 난다. 침실이 너무 작고 덥고 환기가 안된다.					학교/회사/집이 멀다.	공용주방에 친하지 않은 아저씨들이 많아서 피하게 된다. 세탁기가 공용인데 사용하기 꺼려진다. 욕상에 빨래를 널면 1층 고기집의 냄새가 번다.				

[표 3-22] 퍼소나 리서치 니즈 종합

퍼 소 나	개인 관리			이 동			가정 관리			교제 /여가		
	수면	위생/외모	식사	휴식	일/학습	통근/통학	음식 관리	의류 관리	청소 관리	교제	미디어	운동/취미
	취침 기상	세면 샤워/목욕 위생 헤어드라이 화장 착의/탈의	3식 식사 간식 음료 섭취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	업무 부업 구직활동 학업	출퇴근 등하교	요리 설거지 식후 정리 장보기	수거 세탁 세탁물 넣기 운정리 다림질	방 청소 물품 정리 공용부 청소	대화 진로 상담	TV/서핑 영화 관람 음악 감상	신책 채택/단편 독서 게임/ 놀이 음주
Ⓐ	깔끔한 환경과 제대로 된 시설을 원한다. 식탁이 있어서 밥먹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싶다.			5분 이내 주변에 제대로 된 대중교통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전거 및 자가용이 있으면 좋겠다.			빨래를 넣고,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다. 제대로 된 요리기구, 식기 건조기가 있으면 좋겠다. 겨울철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없는 집을 원한다. 주변에 제대로 된 마트가 있으면 좋겠다.			넓은 주방 및 거실이 있어 사람들과 교제원한다. 어울릴 수 있는 공간/구구가 잘 갖춰졌으면 한다. 근처에 헬스클럽 및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 여가를 같이 보낼 수 있는 또래 룸메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비용이 많이 안드는 여가 생활을 하고 싶다. 운동이면 무엇이든지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작고 다양한 여러 공모전이 있으면 좋겠고 이에 따른 소소한 보상이 있으면 한다. (운동/글짓기)		
Ⓑ	거실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에게는 각자의 방이 꼭 있으면 좋겠다. 욕조가 언젠가는 꼭 있으면 좋겠다. 채광이 잘되면 좋겠다. 큰 책장이 있으면 좋겠다.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고 예쁜 조명이 있으면 한다.			지하철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밝았으면 한다. 곰팡이/바퀴벌레/모기가 없는 집을 원한다.			공기청정기, 불박이장, 식탁이 있으면 좋겠다. 빨래방이 별도로 있었으면 한다.			빈프로젝터의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싶다. 주변에 강이나 산 그리고 공원 등이 있으면 좋겠다. 유흥지가 집에서 멀었으면 좋겠다. 인근에 도서관 및 주민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운동, 취미를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		
Ⓒ	개인 침실과 욕실이 있으면 좋겠다.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한다. 어두운 색감의 인테리어를 선호한다.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			위치가 좋았으면 한다.			파스타 등을 요리할 수 있는 쾌적한 주방과 주방도구가 필요하다. 청소한 효과가 분명한 집이면 좋겠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고 빨래를 말리는 자리가 확실하면 좋겠다. 가정 관리 측면의 생활 규칙이 있는 집을 원한다.			집에서 혼자만의 여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넓은 운동 공간 및 운동기구 있는 집을 원한다.		
Ⓓ	침실에서 화장실 냄새가 나지 않으면 좋겠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이 필요하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가 필요하다.					

5_주생활 아이디어 도출

1) 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한시적인 주택인 ‘커뮤니티 하우스’에 가까운 미래 거주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공간과 커뮤니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2) 조사 방법: 개별 과제와 공유

가. Challenge: 워크숍 참여자 모두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고려한 커뮤니티 하우스의 목표를 3~5가지 핵심 문장으로 제한한다.

나. Solution: 핵심 목표별 공간, 커뮤니티 케어 시나리오와 이미지를 드라마, 영화 등의 공간이미지를 활용해서 도출한다.

2) 조사 내용(근 미래 커뮤니티 하우스 시나리오)_퍼소나 A

(1) 개요

가. 기본 정보

- 연령대/성별구성/인원: 20대/남녀분리/10명

나. 공간 구성

- 개인공간: 침실, 화장실
- 공용공간: 주방, 거실

(2) 시나리오

- 개인공간: 시설에서 자낼 때에는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의 방을 공유했지만, 퇴소하고 나서는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에 개개인에 맞는 개인공

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 집을 혼자서 쓰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 혼자 자내는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 방을 가지고 공용 거실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생활 관리 분담: 개인 방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실 같은 경우에는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지 정해야 된다. 자신이 거실이나 부엌, 화장실이나 욕실을 이용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다함께 관리하는 것이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후에 혼자 살아갈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생활 규칙: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야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에 있을 때의 규칙처럼 뻔뻔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규칙은 있어야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막 퇴소한 친구들과 기존 거주민들이 문제없이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규칙을 기준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희망하는 커뮤니티 하우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커뮤니티 하우스는 5층 정도의 건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작은 단지이다. 한 층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가 구분 없이 5~8명이 모여 산다. 각자 개인 방을 가지고 하나의 거실과 부엌, 네 개의 화장실 그리고 남녀 분리형 공용 욕실을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건물마다 체육 활동을 위한 탁구장, 헬스장, 체육관 등의 시설이 있고 옥상에서는 다 같이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모든 실내는 목조풍의 인테리어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그림 3-6]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소나 A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린이 풍부한 느낌의 욕상,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개인 공간, 온수 잘 나오는 샤워장 그리고 욕실을 좀 부리면 욕조 적용. 심플한 느낌의 세면대가 있는 욕실, 담소 나눌 수 있고 가벼운 일도 처리 가능한 거실)

3) 조사 내용(근 미래 커뮤니티 하우스 시나리오)_퍼소나 B

(1) 개요

가. 기본 정보

- 연령대/성별구성/인원: 19~25세 (선생님은 25~40세)/남녀 분리/5~6명

나. 공간 구성

- 개인공간: 자신만의 공간
- 공용공간: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서재, 체력단련실 등

(2) 시나리오

가. 자신만의 공간

-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방에 들어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룸메가 선생님과 요리 하나 했다고 같이 나눠먹자고 했다. 주방에 있는 바테이블에 앉아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은 후에는 내가 도맡아 설거지를

했다. 요리를 해 준 두 사람에게 대한 감사함의 표시였다.

- 커뮤니티 하우스의 참 좋은 장점은 ‘개인공간’이 있다는 것과 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꾸미든지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니에게 방 열쇠와 방을 안내받고 들어가자 눈에 보이는 가구는 서랍 달린 침대, 아직은 비어있는 책장과 서랍이 있는 책상, 반쪽 전선거울이 달린 옷장이다. 화이트 톤이라서 조금은 맛있게 보아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꾸민다면 정말 나위 없이 예쁠 것 같다.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꾸며보라며 5만 원이나 돈을 주셨다. 물론 영수증을 가져야 하지만! 나는 바닥 러그와 실내화를 사기로 했다. 침대 아래 공간과 옷장에 짐을 정리해놓고, 잠시 바닥에 앉았다. 고요한 내 방 밖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요리를 하는 듯 식기들의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만의 공간, 내가 숨을 수 있는 파란치. 평화롭다. 가지개를 한 번 쪽 펴고, 방 밖으로 나섰다.

- 내일은 추석이라 간만에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께 찾아가기로 했다. 원에서는 외박을 하려면 선생님께 여쭙고 동의를 받으면,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선생님에게 말만 하면 된다.

“ 쌤, 저 이번에 할머니한테 다녀오려고요! 저기, 그 포천에 계시는 외할머니요!”

“ 그래? 얼마나 다녀오려고?”

“ 한.., 2박 3일 정도? 오래 안 다녀와요. 다음 주에 알바 있어서”

“ 그래그래, 여비는 괜찮고? 가는 데 얼마나 걸려?”

“ 보너스 받아서 괜찮아요! 지하철로 가는 거라 2시간 정도?”

나. 서로 기대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 마니포/멘토&멘티, 매달 한 번 친목도모 파티, 전체 모임 등)

- 어제 처음 입소했다. 많이 낯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짝꿍 언니를

소개시켜주셨다. 언니는 밝게 인사를 하더니 방을 안내해주었고, 커뮤니티 하우스의 규칙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밥을 먹을 때도, 동네 구경을 할 때도, 이것저것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언니랑 가까워졌다. 이곳에 적응을 못할까 걱정했는데 짝꿍 언니가 있어 다행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

다. 언제든 머물고 싶고, 충분히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고시원 같은 분위기가 아닌 일반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

- 피곤한 하루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들 “어, 왔냐!”며 한 마디씩 거들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서둘러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왔다. 그리고 거실에 모여 있는 무리에 나도 섞여들어 TV를 함께 보았다.

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월 10~15만원)

- 요즘 집세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다 시설 선생님께서 커뮤니티 하우스를 추천받았다.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고, 또 자립관과 같은 곳이 아닌 셰어하우스의 형태라고 했다. 월세가 부담이 되던 차에 월세도, 집의 형태도 듣자마자 확 끌리는 느낌이다.

마.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공간

- 친구들에게 일상생활기술, 경제관련 기술 등 자립기술*을 가르쳐주고, 멘토 역할을 해 줄 상주하는 어른*이 필요하다. (자립기술: 직접적인 교육이 아닌 함께 살아가며 배우는 것. 예를 들면, 함께 장보기, 청소하기 등/상주하는 어른: 선생님이라기보다 함께 사는 동거인 느낌. 친한 언니, 누나, 이모같은 느낌)
- 아직까지는 장 볼 때마다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알 수가 없다. 같이 장보러 간 언니를 보면서 나도 하나씩 배워나간다.

‘통통-’

“수박은 왜 두드리는 거야?”

“수박은 원래 두드려보고, 속이 딱~쫄다 싶으면 사는 거야.”

“이저 이저!”

“응?”

“은진아, 이거! 이 노르웨이 고등어가 해먹기도 좋고, 편해. 가격도 9,900 원이고. 유통기한은 7개월 막 이렇게 가니까.”

“아~ 집에 있던 고등어가 이 고등어구나”

- 이번 주는 내가 주방 청소를 맡았다. 가스레인지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 난감해서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세제, 수세미, 행주만 있으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의외로 간단해서 금방 청소를 끝냈다.
- 이번 달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이 나왔다. 다 같이 모여서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는, 이달 말까지 언니에게 돈을 보내기로 했다. 다음 달엔 내가 요금을 낼 차례다. 언니가 하는 걸 잘 보고 해봐야겠다.
-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는 참 따뜻하다. 여럿이서 모여살기 때문에 가끔 트러블이 일어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복적거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원에 살 때는 개인공간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꾸밀 수 있는 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풀어진 것 같다. 지금의 내 상태는 ‘반독립’이다. 천천히 여러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 좋고, 함께 공감하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언니와 동생이 있어 좋다.



[그림 3-7]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소나 B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화목한 느낌, 바테이블, 방분위기, 서랍달린 침대 등 실용성 있는 가구와 바테이블이 있는 거실, 사람 사는 것 같은 집)

4) 조사 내용(근 미래 커뮤니티 하우스 시나리오)_퍼소나 C

(1) 개요

가. 기본 정보

- 연령대/성별구성/인원: 20~25세/남여 분리/6~10명

나. 공간 구성

- 개인공간: 자기 방을 어떻게 꾸미든 자유롭게 1인 1실
- 공용공간: 거실, 주방, 화장실, 목조있는 욕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다용도실

(2) 시나리오

가.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집

- 처음 커뮤니티 하우스에 들었을 때 방 열쇠를 받았다. 방은 자신이 꾸미고 싶은 대로 알아서 꾸미라고 하셨다. 방에는 침대, 책상, 옷장 등의 가구들이 있었다. 나는 어두운 분위기를 원해서 벽을 어두운 색의 벽지로 바꾸고 암막커튼을 사서 달았다. 마음 같아서는 문, 옷장, 침대도 다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었지만 다음에 살 사람을 위해서 그대로 뒀다. 대신 침구류를 어두운 색으로 샀다. 그리고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 소품들로 꾸

며 놓으니까 바줄만 한 것 같아서 부듯했다.

- 전에 살던 집은 방음이 안돼서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커뮤니티 하우스는 방음이 아주 잘 된다. 방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따라 불러도 옆방에서 들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 방에 들어오면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눈치 안보고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나. 규칙이 있어서 화목한 커뮤니티 하우스

- 오늘은 8시까지 들어 가야한다. 한 달에 한번 하는 커뮤니티 하우스 가족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결정을 한다. 모든 생활 규칙도 가족회의에서 만들어 진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안일 문제를 이야기 했다. 새로 정한 규칙은 각자 방은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고 함께 쓰는 공간인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주방, 욕실, 등은 한 달에 한 번 당번을 정해서 청소하기로 했다. 서로 자유롭게 편하게 말을 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어서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규칙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다. 함께해서 행복한 커뮤니티 하우스

- 오늘은 월드컵 16강 경기 한국 대 벨기에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다. 하우스 단톡방에서 같이 축구를 보자고 해서 K형은 치킨 나는 맥주를 사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빔 프로젝터를 켜서 세팅을 하였다. 또 다른 옆방 형도 치킨을 사와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 치맥을 먹으며 다 같이 응원을 하였다. J는 내일 일찍 출근이어서 먼저 잔다고 했다. 경기는 한국의 5대1 승리로 끝났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모여서 응원을 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다.

라. 취미를 공유하는 또래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모임)

- 오늘은 옆방 동생 B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였다. 커뮤니티 하우스 주방에는 주방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요리하기가 편하다. 레시피, 칼질하는 방법, 불 조절 등 요리하는 방법을 서로 알려주면서 완성했다. 다된 요리를 먹으면서 B는 직접 요리해서 먹는 건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다음에도 알려 주겠다고 하자 B는 자신은 운동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서로 잘하는 것을 주고받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다.

- 오늘은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다. 다들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서 먹으며 파티를 즐겼다. 여럿이 모여서 사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비슷한 또래끼리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어 좋다.



[그림 3-8]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сона C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혼자만의 공간, 규칙이 있어 화목한 집, 함께여서 행복한 하우스, 취미를 공유하는 또래)

5) 조사 내용(근 미래 커뮤니티 하우스 시나리오)_퍼сона D

(1) 개요

가. 기본 정보

- 연령대/성별구성/인원: 19~26세/남녀 분리/20~30명

나. 공간 구성

- 개인공간: 개인 방
- 공용공간: 개인 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

(2) 시나리오

- 1층은 입구로서 거주자들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층이라서 소음이 많다. 따라서 휴식하거나 거주하는 곳이 아닌 체력단련실 샤워장과 세탁하는 공간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등이 배치되었다.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바로 옆에 샤워장이 있어서 바로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세탁하는 공간도 1층에 같이 있어서 좋다. 2층은 관리실과 모든 거주자들이 쓸 수 있는 공동 주방이 있다. 주방에 다양한 조리기구와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고 좋다.
- 3~4층은 넓게 열린 거실과 개인공간이 있어서 편히 쉬거나 잘 수 있다. 물론 개인 방에서 편히 쉴 수 있지만, 좁은 곳 보다 넓은 공간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주자들이 나와서 놀 수 있다. 옥상은 분위기가 좋아서 편하게 쉬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모든 층에는 화장실이 있다.



[그림 3-9] 커뮤니티 하우스 Mood Board_퍼소나 D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분위기 있는 옥상, 수납공간이 있는 샤워실, 탁구대가 있는 체력단련실, 세탁실, 적당한 크기의 방, 좀 넓은 테이블이 있는 부엌)

6) 시나리오 종합

(1) 개인공간

가. 침실

- 내가 직접 꾸밀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며 도난 방지를 위한 방 열쇠가 있고 방음 처리가 된 공간

“침대 아래 공간과 옷장에 짐을 정리해 놓고, 잠시 바닥에 앉았다. 고요한 내 방 밖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요리를 하는 듯 식기들의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만의 공간, 내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 평화롭다. 기지개를 한 번 켜고 방 밖으로 나섰다.”



[그림 3-10] 커뮤니티 하우스 개인공간 Mood Board_퍼сона 종합

(2) 공용공간

가. 거실

-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장소로 담소를 나누고 개인적인 일도 할 수 있으며 다른 구성원과 함께 TV를 보는 넉넉한 공간

“오늘은 월드컵 16강 경기가 있는 날이다. 단톡방에서 같이 축구를 보자고 해서 옆방 형은 치킨, 나는 맥주를 사가기로 했다. 빔 프로젝터를 켜서 세팅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치맥을 먹으며 응원을 했다.

혼자 일 때 보다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모여서 응원을 하니
더욱 즐겁다.”



[그림 3-11] 커뮤니티 하우스 공용공간 중 거실 Mood Board_퍼스나 종합

나. 주방

-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 또는 간식을 먹을 수 있으며 설거지 등 생활 규칙이 잘 지켜지는 공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룸메이트가 선생님과 요리를 했다고 같이 먹자고 했다. 담소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다 먹은 후에는 내가 설거지를 했다. 요리를 해 준 두 사람에게 대한 감사함의 표시였다.”



[그림 3-12] 커뮤니티 하우스 공용공간 중 주방 Mood Board_퍼스나 종합

다. 옥외 공간

- 넓찍하고 분위기 있는 옥상 정원,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오늘은 8시까지 들어가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동체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새로 정한 규칙은 각자 개인 방은 알아서 청소하고 함께 쓰는 공간인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주방, 욕실 등은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로 했다. 서로 자유롭게 편하게 의견을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좋다. 특히 우리 집의 규칙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좋다.”



[그림 3-13] 커뮤니티 하우스 공용공간 중 옥외 공간 Mood Board_퍼сона 종합

6_발견점: 문제 정의 및 방향성 발굴

1) 핵심 메시지

(1) 문제 정의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로 (학업 & 취업)>주거=경제’

“집은 열악하고 외롭지만 해결 할 방법을 잘 모르겠고, 나에게는 앞날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

(2) 아이디어 도출

개인공간이 확실하고, 다양한 활동과 마음 편한 교류가 가능한 공용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원한다.

2) 발견점 종합

[표 3-23] 퍼소나 리서치에 의한 커뮤니티 하우스 요구 사항

개요	대상	· 친구, 지인, 선후배 (선생님도 가능)
	비용	· 월세 20~30만 원
공간	입지	· 대중교통의 불편도가 높지 않은 지역 (지하철에서 도보 15~20분 내외) · 골목의 경사가 너무 높거나 어두운 지역 제외
	개인공간	· 독립적이고 안락하고 취향이 존중되는 개인실 확보
	공용공간	· 채광/환기/방음/안전 등 기본적인 주거성능 충족 (기존: 좁고 낮고 좁고 지저분함)
		· 휴식과 교제가 원활한 거실 및 식당 필요 (기존: 식탁 없는 좁은 거실) · 청소, 빨래, 요리 등 일상적인 생활관리를 지원 공간 필요 (기존: 자율적으로 관리 안됨) · 옥상 정원, 체력단련실 등 활발한 활동 공간 희망
운영	커뮤니티 케어	· 생활 규칙 간소화 (기존: 생활 규칙이 너무 많은 아동복지시설 경험) · 생활 관리의 어려움 해소 (기존: 청소/설거지 등 집안일 분담 관리 어려움) · 친구/선배/생활지도 선생님과의 동거의 장점 발굴
	프로그램	· 진로 및 생활관리 등 유용한 프로그램 희망

04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 1_조사 계획
- 2_아동복지시설 보육사
- 3_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자원단체 대표
- 4_아동복지시설 선배 창업자
- 5_발견점: 문제 정의와 방향성 발굴

04 |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1_조사 계획

1) 조사 개요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단체 대표, 아동복지시설 선배 창업자와 같이 퇴소 청소년을 지원하는 이해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호 종료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유 주거의 구조적 해법을 도출하였다.

2) 인터뷰 대상

[표 4-1] 이해관계자 유형별 조사 대상

	A	B	C
연령	30대	50대	30대
성별	남	여	남
소속	아동복지시설 자립 지원 담당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 단체 대표	아동복지시설 선배로서 청소년 디자인 교육/취업 지원 단체 대표
종사기간	5~6년	5년	2년
지원자수	88명	15명	20명
거주지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서대문구

3) 조사 방법

가. 조사 목적: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상황과 직면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제안하는 공유 주거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나. 조사 방식: 개별 인터뷰

다. 조사 일시: 2018월 6월 26일(화) ~ 6월 28일(목)

라. 조사 항목

[표 4-2] 이해관계자 리서치 통합적 조사 항목

구분	항목		
기초 사항	성별/연령/소속/주소		
직무 사항	현재 소속된 곳에서의 주요 업무		
	해당 업무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		
	관련 업무 종사 기간		
	현재까지 함께해 온 보호 종료 청소년의 수		
담당자 관점의 보호 종료 청소년 현황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이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사급한 문제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이 실질적 자립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응)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		
	성별, 지역별, 학력, 경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차의 유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서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해결의 주체 및 방법, 사전 예방 솔루션		
	정부/지자체/기업 지원의 방법		
	일반적으로 퇴소 후, 자립준비 단계의 구성		
	자립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의 현황, 유용한 점		
	독립 후, 주로 거주하는 공간 및 문제점		
	좋은 사례와 안타까웠던 사례		
주거 환경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필수적인 거주 환경의 필수 요건 (형태, 위치, 가격, 규모 등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시설의 한계/문제점		
	세 어 하 우 스	셰어하우스 인지도	
		한시적 공동 거주 모델 찬성 여부 (온전한 자립 준비)	
		셰어하우스의 동거인 특성 및 규모	
		고려 요소 (비용, 입지, 주거 환경, 공간, 이웃, 기타 등)	
		인원 선발 방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	
		최대 거주 기간	
		적정 부담 비용	
		필수적인 생활 규칙	
프로그램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체적인 운영 방식		
커뮤니티	선후배로 구성된 커뮤니티 필요 여부		
	구체적인 운영 방식		

2_아동복지시설 보육사

1) 일반적 사항

(1) 기초 사항



- 성명: 이남용
- 성별: 남
- 연령: 30대
- 주소: 서울 은평구

(2) 직무 사항

- 담당업무: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퇴소하기 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하게 된 동기: 사회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청소년기에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애착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업무 종사 기간: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 함께 한 보호 종료 청소년 수: 남학생 168명과 함께 지냈는데, 초등학생은 2명이고 대부분 중고등학생입니다. 이 중 88명이 퇴소했습니다. 퇴소생 88명 중에서 21명이 대학을 진학했으며 나머지는 취업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생 중에 생산직으로 가는 경우에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담당자 관점에서 본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현황

- 시설퇴소자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모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주거문제를 포함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정착금이 너무 적습니다. 정착금 500만 원과 CDA(다담씨앗통장)의 금액을 합치면 최대 1,700만 원을 받는 친구도 있던 하지만 예외적 경우입니다. 다담씨앗통장은 2013년 신설된 제도로서 후원자의 후원금만큼 정부의 지원금이 덧붙여져서 변동금리로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500만 원은 가장 싼 지역에서도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에는 1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700~800만 원 정도로 상승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주거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생활고 역시 문제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60만 원 혜택만으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실제 시설퇴소자가 실질적 자립(심리적, 재정적, 사회적)까지에 걸치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릴 때부터 자립을 위해 집합 교육 등으로 여러 가지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데, 여사인지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자립을 위해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 면 퇴소생의 경우는 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적응하는 예도 있지만, 3년이 지나도 상하차 등 단편적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5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 성별, 지역별, 학력, 경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차가 있나요?: 대부분은 고졸 취업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80% 이상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초등학교 때 대부분이 개인별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생활에 일부 지원을 하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서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다. 주거문제도 포함해서요.
- 누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시설 혹은 외부

후원의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자체/기업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별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르므로 혼동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사에서 경제교육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의 이해도가 낮고 절박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 주는 경우 첫 가입비는 내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복지시설별로 아이들의 한 달 용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피복비가 한 달에 30,000원, 용돈은 25,000원입니다. 사실 이런 금액만으로는 일반 중고등학생보다 삶의 질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면 운동화 구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물건을 기증하기보다는 아이들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퇴소 후, 자립준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소 전에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이 8가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생활단위에서 보육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경제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퇴소 후에도 5년 동안은 추적해서 아이들의 현황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연계하기 위해 동문회가 있는데 가입하면 반찬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등 혜택을 주지만 가입률이 낮습니다.
- 자립준비를 위한 거주공간의 현황은 어떤가요? 어떤 점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립체험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1~2주이기 때문에 너무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독립 후, 주로 어떤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한 아이들은 회사 기숙사를 최우선으로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내전세주택 지원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

기에는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구한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같이 살기도 합니다. LH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구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복지시설에서 함께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자를 통해 승인에 대한 답변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직접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을 많이 받을 경우, 이자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좋은 사례와 안타까웠던 사례는 무엇인가요?: 퇴소한 88명 중에서 LH 지원을 받는 경우가 40% 정도입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25세 미만인 경우 사실 100% 승인이 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기도 하고, 6년이란 기간을 가장 본인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신청을 늦추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재원생의 경우, 시설에서 대학등록금을 후원해줍니다. 그런데도 보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그 전에 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보육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주거 환경

- 퇴소자를 위해 거주 환경의 필수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교통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너무 낙후된 집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세어하우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세어하우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홍대 앞에 공유 주거에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어하우스가 퇴소 아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외로움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관의 한계/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립생활관의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이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역시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단체생활을 해왔기 때

문에 사실상 아이들은 개인 생활에 대한 바람이 큼니다. 그룹홈의 형태로 방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주거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퇴소자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셰어하우스에 공동 거주하는 모델에 찬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할까요?: 좋을 것 같아요. LH 지원에 선정되더라도 두 달이 지나야 승인됩니다. 게다가 적합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LH지원 주택으로 등록을 꺼립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택을 찾기 전에 1년 정도 셰어하우스 생활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4년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혹은 1년 더 지원할 수도 있으면 해요. 단, 계약은 1년 단위로 점검을 했으면 하고요. 시설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제가 경험한 아이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셰어하우스가 퇴소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셰어하우스에서 퇴소자들이 누구와 몇 명이 함께 거주하면 좋을까요?: 20평대의 집이라면 최소 4명, 최대 6명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다면 인원이 더욱 많아지겠지요. 동거인은 또래보다는 연령차가 좀 있는 선배배가 함께 거주하였으면 합니다. 멘토 역할을 하는 형이 있었으면 해서요. 셰어하우스에는 굳이 선생님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상주가 아니라 종종 와서 챙겨주는 역할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더 이상 시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3~4층 규모의 건물이라면 선생님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건물 및 입주자 관리의 측면이라면 함께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다. 또한 선배가 멘토의 역할을 하고 운영관리에 참여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 혹은 관리비 일부를 줄여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셰어하우스 오픈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셰어하우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원할 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학생이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어하우스 오픈 시, 인원 선발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의 유사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분과 주거상황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 퇴소자가 부담해야 할 적절한 비용은?: 20~25만 원에 월세와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가 별도로 들기 때문이지요.
- 내부 생활 규칙상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타인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퇴소자의 자립을 위해 세어하우스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집이라기보다는 입주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요. 어학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 및 취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5) 보육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 퇴소자를 위한 선후배로 구성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해당 커뮤니티가 세어하우스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규모 있는 건물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적게는 주 1회 혹은 격주로 반성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나누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요일 차를 같이해도 좋겠습니다.

니다. 사실상 같이 살아도 얼굴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야한 규칙이 일상적으로 진행 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두고 게임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3_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단체 대표

1) 일반적 사항

(1) 기초 사항



- 성명: 김경미
- 성별: 여
- 연령: 50대
- 소속: 새싹 재단¹⁾
- 주소: 서울 용산구

(2) 직무 사항

- 담당업무: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하게 된 동기: Seoul International Women's Association(SIWA)를 통해 여러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무연고 아이들에게 가장 마음이 가더라고요.

1) 새싹재단은 보육원 청소년들을 독립적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치관 교육 및 문화체험, 학습지도, 진로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이후에도 정서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ww.sessak.org

- 업무 종사 기간: 5년 정도 됐습니다.
- 함께 한 보호 종료 청소년 수: 15명 정도 됩니다.

2) 담당자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현황

- 시설퇴소자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모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주거, 재정문제, 취업, 인간관계와 사회적응, 정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딱 하나를 꼽아내거보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시설퇴소자가 실질적 자립(심리적, 재정적, 사회적응)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최소 2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개인에 따라 3년까지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 성별, 지역별, 학력, 경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차가 있을까요?: 여학생이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원활하고 사회적 도움을 받아 적응하기 빠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보험 가입 같은 것도 잘하고요. 하지만 막상 사회로 나가면 한국 사회가 남녀차별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가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역적인 부분은 서울에 거주하면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서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주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는 주거가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 누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과 사회 그 사이에 개인 후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셰어하우스 같은 중간 지원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자자체/기업 자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셰어하우스 by 회사 이름’으로 공간 제공 후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자립관은 현재 공급이 너

무나 부족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단순히 자립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 일반적으로 퇴소 후, 자립준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멘토가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순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멘토가 없는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립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누가 옆에 있고 없과의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 자립준비를 위한 거주공간의 현황은 어떤가요? 유용한 점과 문제점은?: 보통 퇴소 후 기숙사 있는 회사 혹은 기숙사 있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LH 전세주택은 단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지요. 그 밖에는 고시원, 원룸 등도 있습니다.
- 좋은 사례와 안타까웠던 사례는 무엇인가요?: 한 친구는 남산에 있는 깔끔하며 교통 좋은 LH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SH에서 괜찮은 집에서 살다가 부산의 LH로 이사갔어요. 일반적으로 기숙사 들어간 친구들은 대부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지불하면서 원룸에서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3)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주거 환경

- 퇴소자를 위해 거주 환경의 필수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두리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변의 뒷골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대중교통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너무 낡은 집만 아니면 괜찮아요.
- 세어하우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 퇴소자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세어하우스에 공동 거주하는 모델에 찬성하십니까?

까?: 네. 찬성합니다.

- 셰어하우스에서 퇴소자들이 누구와 몇 명이 함께 거주하면 좋을까요?: 3~4명 정도면 좋겠어요. 성격이나 예의, 상식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수습기간 (Probation period)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 적절한 지 맞춰보기 위해서요. 이 중 한 명이 리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 셰어하우스 오픈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셰어하우스도 단계별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연고 아이들이 자립을 연습하는 집. 두 번째는 이들이 사회적 배치와 연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자립하게 되면 좀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셰어하우스 오픈 시, 인원 선발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청서+추천서 3개 (친구 1명, 선생님 2명)+인터뷰+수습 기간 (probation period)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퇴소자가 셰어하우스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연간 계약 연장을 하되 최소 2년 정도라 생각합니다. 만약 셰어하우스가 중간 단계 기능이라고 하면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 제한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픈해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정기적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거주를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하니까요.
- 퇴소자가 부담해야 할 적절한 비용은?: 최대 2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주택의 경우는 10만 원 정도 선에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 내부 생활 규칙 상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규칙은 지나치지만 없다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감정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망 (Safety Net) 정도의 개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대부분

물건 소유 개념이 없는 편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저희 단체 내에서 볼링 동아리를 운영했을 때 모두 동등한 관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를 동일하게 각출해서 진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셰어하우스도 모두 동등한 자격이지만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퇴소자의 자립을 위해 셰어하우스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우리 단체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셰어하우스에서도 운영되면 어떨까 해요. 예를 들면 취미, 용돈 관리 스킬, 진로 모색 등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운영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교육도 필요합니다. 임신한 여학생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 퇴소자를 위한 선후배로 구성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yes 라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해당 커뮤니티가 셰어하우스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차적으로 셰어하우스 구성원에 집중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의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단체생활과 외부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룹홈 형태의 커뮤니티와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셰어하우스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공동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_아동복지시설 선배 창업자

1) 일반적 사항

(1) 기초 사항



- 성명: 고대현
- 연령: 30대
- 성별: 남
- 소속: (예비)사회적기업 소이프²⁾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2) 직무 사항

- **담당업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로 상품기획/디자인/생산관리 전반 및 디자인 교육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하게 된 동기:** 5년 전에 사진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의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사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 학업을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께서 충분한 지도보다 오히려 다른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모두 그렇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시는 방식이 일부 보이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²⁾ 소이프(SOYF, Stand On Your Feet)는 ‘스스로 일어서라’는 뜻으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을 돕는 디자인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여성가족부 제 2017-03)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에게 디자인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보호 종료 청소년과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과 함께 만든 결과물은 자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www.soyf.co.kr

- 업무 종사 기간: 법인설립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후로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 함께 한 보호 종료 종료 청소년 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포함해서 20명 넘는 보호 종료 청소년과 함께 했습니다.

2) 담당자 관점에서 본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현황

- 시설퇴소자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모두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우선 진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퇴소하자마자 현실에 바로 부딪히게 되는데 우왕좌왕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주거문제입니다.
- 실제 시설퇴소자가 실질적 자립(심리적, 재정적, 사회적응)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부터 진로문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이프는 고등학생부터 진로교육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수능 등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중학교 시절부터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한다면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인 약 80% 정도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등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성별, 지역별, 학력, 경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차가 있을까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처음에는 학업·취업의 성취가 높지만 의외로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성별 편차는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편차가 매우 큼니다. LH 전세 지원금을 받으면 거의 8,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주거 마련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자립은 안 되고 있지만, 심리적 안정이 되어서 진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서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진로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이 주거문제입니다.
- 누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아무리 도움을 줘도 결국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단,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유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의 하나는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 정부/지자체/기업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누가 되든 방법은 만들 수 있겠지만, 실현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희망은 작은 편입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소이프의 역할 안에서 정부/지자체/기업 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용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후원 때문에 직업 선택의 절실함이 적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후원보다 인턴십 등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소 후, 자립준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이들이 보통 퇴소하자마자 본인이 고아라는 것을 체감한다고 합니다. 바로 갑자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바로 벽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도 필요하고 연대감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실 아동복지시설 내에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세스가 있긴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2~3개월 동안 자립관에서 생활하고 경제적인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생활밀착형 자립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지원금 정보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 자립준비를 위한 거주공간의 현황은 어떤가요? 어떤 점이 유용한가요?: 자립 생활관은 380명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해에 나오는 퇴소자들은 전국 단위로 몇 천 명이 됩니다.
- 독립 후, 주로 어떤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자립생활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학 기숙사, 고시원, LH 전세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을 얻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LH 전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친구가 전세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영향을 받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게 되는데, 계약 시 LH 지원을 받는 임차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좋은 사례와 안타까웠던 사례는 무엇인가요?: H대 공대에 재학 중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LH 지원을 받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방에 있는 친구가 함께 자내게 됐는데 소이프의 진로교육을 거쳐 취업하게 됐습니다. 학업을 하는 친구와 취업을 한 친구가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 때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동거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하는 친구와 구직 중인 친구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아무도 조율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주거 환경

- 퇴소자를 위해 거주 환경의 필수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KBS 시사정보 방송인 '쉴에 퇴소자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청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잠이 머뭇머뭇해야 진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 물건 네 물건, 소유에 관한

의식이 적습니다. 내 것을 중요시하고 아끼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국민의 물건을 가져 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 안에서 내 물건을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셰어하우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런던에서 어학 연수를 할 때 셰어하우스를 경험해 봤습니다.
- 퇴소자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셰어하우스에 공동 거주하는 모델에 찬성하십니까? 만약 찬성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할까요?: 네. 찬성합니다. 전국 대학교 사회공헌창업 동아리인 인액터스에서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비용 절약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기대효과는 ‘유대감 형성’입니다. 다큐멘타리를 함께 보고 감상을 나눴을 때, 복지시설 아동들이 가장 크게 언급한 부분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동안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세상에 혼자 나가서 부딪쳐야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셰어하우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셰어하우스에서 퇴소자들이 누구와 몇 명이 함께 거주하면 좋을까요?: 또래뿐만이 아니라 선후배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함께 거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또래끼리만 같이 살 경우, 생활관리 측면에서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멘토 역할을 하는 동거인이 있다면 더욱 성공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층별 30평 정도 되는 3~4층 규모 있는 건물에 10~12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별도 공간이 제공되고요. 멘티들도 청년들의 생활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분리된 생활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지속적인 공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간을 누리다가 자립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 생활의 눈높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을 의도해도 좋겠습니다.

- 셰어하우스 오픈 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립지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밤늦게 집에 갈 때는 차안, 안전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더욱 편하고 안전한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 셰어하우스 오픈 시, 인원 선발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까요?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퇴소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공간을 거주한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퇴소자가 부담해야 할 적절한 비용은? 공간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비 등도 함께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자립해서 생활하는데 필수라는 교육 차원입니다. 임대료는 규모와 시설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30만 원이 넘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위해서 저축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 내부 생활 규칙상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그저 지원받고 안주하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안일하지 않도록 생활규칙과 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문제가 될 때 퇴소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2년마다 리뉴얼해서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인 출입 관련 규칙이 명확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개인 소유 경험을 별로 해보지 않아서 도난사고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너무 자유롭게 드나들면 이런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공간 사용과 관련해 거주자들을 배려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는 규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은 섞여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층별 구분 정도는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육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퇴소자의 자립을 위해 세어하우스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강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실행되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기획-실행-리뷰의 전 과정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5) 보육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 퇴소자를 위한 선후배로 구성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대부분 어른이 복지시설 청소년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실질적 해법을 몰라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테일한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면 합니다.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멘티가 중요한데, 하루 종일 생활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침 혹은 저녁 잠깐, 주말 일부 등의 시간을 내어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마음을 나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 내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하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저도 주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1층에

일 할 수 있는 카페 및 교육장이 있고 상부에는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일과 생활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_발견점: 문제 정의와 방향성 발굴

1) 핵심 메시지

(1) 문제 정의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 그다음에 ‘진로’

“오늘 당장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까?”

(2) 아이디어 도출

주거비 절감이 가능한 공간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2) 발견점 종합

[표 4-3] 이해관계자 리서치에 의한 커뮤니티 하우스 요구 사항

개요	대상	·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진 또래 및 선후배 (대학생>직장인)
	거주 기간	· 2년 (대학생의 경우 6년까지 연장 고려)
	비용	· 월세 20~30만 원
공간	입지	·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확보 (지하철 도보 10분 내외) · 안전한 귀가 지원 (뒷골목, 어두운 거리 제외)
	개인공간	· 확실한 개인공간의 확보로 프라이버시 존중
	공용공간	· 가족 공동체와 같이 안전감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 필요
운영	커뮤니티 케어	· 자연스러운 연대감 형성을 위해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 구성원끼리 함께 정한 규칙 준수 (청소/장보기/손님 초대) · 문제 발생 시 수시로 모여 논의하는 반사회 프로세스 구축
	프로그램	·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자존감 및 자신감 회복 - 진로 모색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교육 (예시: 기업 연계형 직업 교육, 취업 정보 제공) - 자립을 위한 경제 교육 필요

05

자립 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벤치마킹

- 1_조사 계획
- 2_국내 사례
- 3_국외 사례
- 4_발견점: 문제 정의와 시사점 도출

05 | 자립 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벤치마킹

1_조사 계획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국내외 자립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사를 통해 공간 및 시설,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 방식: 데스크 리서치, 답사, 인터뷰

다. 조사 일시: 2018월 7월 1일(일)~9월 11일(화)

2) 조사 대상

가. 선정 관점: 선후배 (청년) 동거, 임시 거주, 성장-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운영 등의 요건이 반영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나. 조사 항목: 개요, 공간·시설,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생활 규칙 등

다. 조사 대상

[표 5-1] 자립 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조사 대상

	특성/지역	대상
국내	청소년	자립관 비상
	자립 지원 주택	세품아 (답사 및 인터뷰)
	서울시	배우의 집
	공동체주택 & 사회주택	쉐어어스
국외	일본	Fespa Kyoto
	중국	Harbour Youth Community (답사 및 인터뷰)

해외는 보육원을 폐쇄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이 친부모와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양 혹은 위탁 제도로 아이들이 가정에

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자립 지원 주택이 아닌, 특성화된 목적으로 공동 거주하는 커뮤니티 하우스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_국내 사례

1) 청소년 자립 지원 주택

(1) 자립관 비상 외

가. 자립관 비상

- 목적: 가출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 등 주거 빈곤에 처한 청소년에게 저렴한 비용의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뿐만 아니라 자립준비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대상: 시설 퇴소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해체가정 등 주거 빈곤에 처한 청소년
- 거주 인원: 약 16인
- 비용: 내공사 위탁사업으로 일반 월세보다 저렴하게 제공
- 운영: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6-1

[표 5-2]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자립관 비상

항목	내용
공간	· 개별 생활공간 및 주방/거실/욕실 등 공용 생활공간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입주 상담 · 입주 이후 경제적 발판 마련을 위한 일자리 연계 ·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진로 프로그램 운영
이용 절차	· 입주심사 - 대기 - 입주확정 - 입주자 건강검진 - 계약 · 보증금납부 (상당가능) - 입주

자료: 자립관 비상 웹사이트 <http://wahaha.or.kr/bisang>



[그림 5-1] 자립관 비상 공간 현황

(사진 출처: 자립관 비상 웹사이트 <http://wahaha.or.kr/bisang>)

나. 자립팜 이상한 나라

- 목적: 여성 청소년 전용 자립관(자립관 ‘비상’의 자매 공간)으로서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인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대상: 18세~24세 여성 청소년
- 운영: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 주소: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16길 6 203호

다. 들꽃피네 카페

- 목적: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공간으로 직업체험과 문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복합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 대상: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운영: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66 1층

[표 5-4]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들꽃피네 카페

항목	내용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 · 취약계층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제공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주요 사업	· 커피전문점 운영, 케이터링 사업, 원두 및 식재료 판매 및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및 훈련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지역주민 연계	· 지역주민에게 카페 및 소통 프로그램 공유

자료: 자립관 비상 웹사이트 <http://wahaha.or.kr/bisang>



[그림 5-3] 들꽃피네 카페 프로그램 현황

(사진 출처: 자립관 비상 웹사이트 <http://wahaha.or.kr/bisang>)

(2) 세품아¹⁾

가. 개요

- 목적: 범죄 보호감호 처분으로 위탁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과 교육 및 자립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향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대상: 범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 거주 인원: 약 25~40인(알람나이 약 300인)
- 미션: ‘문제아’가 스스로 ‘문제해결자’가 되고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하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학대와 결핍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처 입은 아이들이 ‘상처를 아는 치유자’가 되어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 비전: 위기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Youth Campus’를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복제 및 확산하고자 한다.
- 핵심 가치: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무한히 책임지고 사랑한다.
- 운영 철학: 삶을 함께하는 대안적 가족공동체로서 아이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한 사람의 전인격적 변화를 지지한다.
- 비용: 약 20만 원
- 운영: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

¹⁾ 세품아(사단법인 세상을 품은아이들)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가치를 되찾아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상을 품은아이들을 무한히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발굴, 치유와 회복, 교육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거쳐 ‘문제아’라고 낙인찍힌 아이들이 ‘문제해결자’가 되어 스스로 건강히 서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www.sepuma.or.kr

- 조직: 가족생활팀, 자립지원팀, 교육상담팀, 미래교육연구소, YOUTH CAMPUS, 경영지원실, 법인본부, MG밴드 등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 118-15 신남빌딩 3층

[표 5-5]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세품아

항목	내용
발굴 절차	• 사법부를 거쳐 발굴: 비행/범죄청소년으로 사법부에서 보호처분 받고 위탁된 청소년 인계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로부터 발굴 • 청소년 네트워크에 의한 선정: 비행이나 범죄 이력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주변 요청으로 선정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YOUTH CAMPUS	• Home (치유와 회복): 교사와 아이들이 관계 욕구를 충족하며 상호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대안적 가족공동체 - 대안적 가족공동체 - 생활밀착형 상담 - 단계별 맞춤 여행 • School (교육): 아이들의 욕구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재능 개발이 일어나는 교육 - 동기에 기반하고 욕구에 응하는 탄력적 프로그램 -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 및 체험 • Studio (취업/창업 등 자립): 일상생활 교육과 직업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에 기반한 자립의 토대를 마련 -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분야 탐색 - 사회적 관계의 회복 지원

자료: 세품아 웹사이트 www.sepuma.or.kr

나. 인터뷰



- 대상: 명성진 목사
- 소속: 세품아 대표
- 일시: 2018년 7월 26일, 8월 22일

① 직무 사항

- 현재 소속된 곳에서 하고 계신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범죄 경험으로 보호감호 대상이 된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세품아'의 대표로 있습니다. 세품아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문제아'라고 낙인이 찍힌 아이들이 '문제해결자'가 되어 스스로 설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그 일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강원도의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격동의 시기에 2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20대 중후반 이후로 종교인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가장 낮고 어려운 처지의 소년원생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삶 안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2008년 이후 거의 10년을 아이들의 일상과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함께해 온 청소년은 몇 명인가요?: 한 번에 함께 하는 아이들은 약 25~40명이며, 이제는 그 동행의 수가 합쳐서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가요?: 범죄의 가해자로 법원에서 보호 감찰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동네에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서 가출을 하다가 나중에는 범죄나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아이들에게서 알게 된 사실은 아이들은 결코 ‘나쁜 아이들’이 아니고 ‘아픈 아이들’이었고, ‘가출’이 아닌 ‘탈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정과 학교가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로 아납니까? 누구나 안정감을 주는 준거공동체가 하나만 있었다고 세상을 향해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것이 없어서 내몰린 거지요.
- 그렇게 내몰린 아이들은 어떻게 세품아로 오게 되나요?: 대부분 법원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부탁을 받습니다. 이제 갓 중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탁해 몇 년 동안 함께 거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품아는 아이를 품습니다.

② 담당자 관점에서 바라본 보호감호 청소년의 현황 분석

- 보호감호 청소년이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 혹은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모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즉, 공격적으로 되거나 혹은 정반대로 소심해지는 것인데, 모두 자존감이 매우 낮기 때문이지요. 저는 특히 공격적이고 거친 아이들을 상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 실제 보호감호 청소년이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응 등 실질적 자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운영하는 공간과 연계해서 설명해주세요: 아이들이 재판 전 단계인 6호 처분을 받으면서 격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맞춰 6개월에서 3년까지 그룹홈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홈은 세상 혹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자의적으로 6개월을 기본으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선후배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의 선배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큰 성취동기가 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사실 공간 자체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개인별 성향에 맞춰 꾸미거나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못 되지요.

- 자립준비를 위해 함께 사는 것은 아이들이 원할까요?: 사실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단체 활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싶은 거지요. 이로 인해 자립지원공간을 나가서 홀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그리고 근근이 살아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간 아이가 현실의 월세, 생활비에 차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친구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동시에 혼자 살아간다는 두려움이 있고, 부모님께 버려졌다는 것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등 늘 혼란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 자립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의 한계 및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자립과 독립에 실패하는 주된 요인은 아이들에게 기능을 가르치면 된다고 믿었던 점입니다. 즉, 기능을 배워서 취업해도 직장 생활을 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보통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님니까? 이것은 서해바다에서 새우깡을 먹는 갈매기를 키우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한계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내공이 필요한데, 용기는 키워주지 못하고 기술만 가르쳐준 것입니다. 내공이 부족해서 사회에서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흔히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현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루어 내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어려운 것입니다. 즉,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기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이 중요합니다.
- 사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아쉬운 점인가요?: 앞의 이야기와 연계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자립이란 ‘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일자리’ 자체 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들어가면 일이 그저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꿈을 실현해도 즐겁거나 행복하기 보다는 내 자신을 죽이고 자존감이 낮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은 곧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 중 ‘삼분의 이’를 일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일은 그 자체로 나의 인생인데 ‘일자리’라는 것은 그저 성취하고 얻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의 가치’에 더욱 의미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부터 다시 돌아켜 봐야 합니다. 산업사회의 제품과 같이 아이들 개개인을 규격화하여 네모반듯하게 다듬어서 세상에 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치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자신의 본질과 껍데기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맙니다. 아랫도 아이들 중심의 가치를 세우고, 배움과 일의 관점을 변화시켜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는 개별 케어보다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술 먹고 행패부리는 아버지, 바람난 어머니 그리고 이유 없이 때리는 형 등 부정적인 주변인들 속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위로와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육’을 다시 논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 아이들이 ‘공감인’의 정혜신 박사와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네이버 대표님과 의 투어 및 대화를 통해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반짝거리는 촉매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몇몇 아이들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관점을 저희는 공교육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적인 유전자를 기반으로 교육 전반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현재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한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여행, 문화예술, 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행이 핵심적인 활동인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여행을 지향합니다. 아이들은 평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극기의 순간을 겪으면서 갈등을 표출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 Peace Camp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품아의 아이들은 범죄의 가해자입니다. 이들에게 피해자의 마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사려가 아닌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문제야’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개입도 최소한으로 작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품아 안에서 선후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반상회와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문제가 해소가 되면 규칙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 다다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혹시 실망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실망’은 ‘소망을 잃어버렸다’를 의미하고 그것은 즉, ‘사람을, 사랑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용어를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높고 기다려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세품아는 병원으로 치면 응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치유가 되어도 그후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립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퇴원 후의 재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어엿한 청년이 된 세품아의 1세대들과 더불어 청년의 진로와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공교육에 세 품아의 정신을 대입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 공교육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까요?: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1~2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세상에서 든든한 부모님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한 일반적인 청소년도 사회에서 자존감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 아려한 응급실과 재활원으로서 활동의 확장은 계획된 것인가요? 얼마나 준비하고 실행을 하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선경험, 후이론’의 방식으로 실행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 계획을 오래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토종주 활동은 계획한 지 2주 만에 실행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바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 면밀한 계획에 의한 매뉴얼과 같은 실행보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체하지 않고 바로 진행합니다.

③ 보호감호 청소년을 위한 거주 관련

- 보호감호 청소년을 위해 거주 환경의 필수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 여건 이전에 누군가에게 충분히 존중을 받고 공감을 받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범죄 성향은 습관과도 같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안정된 커뮤니티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그러한 체질화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셰어하우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 보호감호 청소년들이 온전히 자립하기 전까지 셰어하우스에 공동 거주하는 모델에 찬성하십니까?: 네, 그것이 든든한 공동체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셰어하우스에서 보호감호 청소년이 누구와 몇 명이 함께 거주하면 좋을까요?
인원은 15명이 적당해 보입니다. 20명이 넘으면 커뮤니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두 분 정도 함께 거주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밥을 만들어서 먹고, 이불을 개거나 양말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탁을 일정기간별로 하는 등의 생활 관리는 아이들끼리 스스로 하기 힘든 일인데, 선생님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에서 아래(Top-down) 형식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아래서 위(Bottom-up) 방식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저 조력자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 셰어하우스 오픈 시 공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각자의 공간'이 중요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저 역시 때때로 '짱' 박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보육선생님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숨어서 만화를 보거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함께 모이고 싶어 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독립적인 성향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셰어하우스 오픈 시, 인원 선발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세품아'는 선발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발 기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마음이 가고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동일 집단끼리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모아 놓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갈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열매 맺음'이 목적이라면 더욱이 기준이나 커트라인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준 밖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신념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 이들이 부담해야 할 적절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립홈 유형의 '세품아'

에서는 아이들이 월세 및 관리비 그리고 식사비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식사는 기본적인 쌀이나 반찬 등은 제공하고 있지만 그 밖에 비용은 보통 20만원 정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높으면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 꼭 필요한 내부 생활 규칙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고민할 때 중요한 기본은 결국 ‘아이들의 욕구’에서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알람니 모임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제가 속하는 순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파헤치고 열어 놓은 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세피아에서는 또한 출소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희들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을 경우에 이것은 더 이상 아이들 개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오픈하고 함께 갈등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행을 할 때도 갈등을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새로움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싸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갈등 해소의 과정을 겪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존중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약속’, ‘공간에 대한 약속’ 등이 그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약속은 ‘내가 침대에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자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④ 보호감호 종료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서비스 관련

- 보호감호 종료자의 자립을 위해 세어하우스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전을 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새로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용인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소년원을

퇴소한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었을까요?

- 성장 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세품아에서는 몽골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아이들이 식당 (죽집, 피자집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동차 산업 등에서 아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자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자립을 성취하는 성장의 프로그램을 실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품아 아이들의 과감한 도전 정신과 일반 청년들이 전문적 시각이 결합될 수 있는 사업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⑤ 보호감호 종료자의 커뮤니티 관련

- 이 공간에서 선후배로 구성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년원 퇴소생끼리 추후 어울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아이들조차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하고만 의도적으로 어울리는 것도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함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는 어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매일 매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의 신호등’을 통해 현재 감정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보통인지 확인합니다. 어떤 아이는 중년의 아주머니를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오픈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거 내에서 선후배 관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커뮤니티 활동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우선 아이들의 관계는 수평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고요.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함에 따른 수직적 상황에 익숙한 삼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수평적 문화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과거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암색태’를

꿈꾸기도 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러한 합의 논리가 깨지고 회복하는 경험을 나누었던 합니다. 세품아도 처음에는 ‘형 문화’를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형에게 조금 더의 무와 권한을 주고 운영하려고 했으나, 개인의 성향이나 소양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형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는 어떠해야 할까요?: 스페인 몬드라곤 MTA 아카데미 (Mondragon Team Academy)를 통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잘 살기 위해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기 위해 모여 삽니다. 이곳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모두가 동의해야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구조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55:45의 구조에서 45의 불만족을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모두가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는 세대를 넘으면서 진정한 공동체 문화로 남을 것입니다.

2)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1)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개요

가. 공동체주택

- 공동체주택 개념: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 하는 주택을 의미한다(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1항).
- 공동체주택의 필요성
 -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 해체로 발생하는 생활문제를 공동대응으로 해결하고, 육아·외로움·높은 주거비 등 공통된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공동육아, 카풀, 물품공유 등 공유방식을 통해 최소 투입으로 높은 효율성).

- 주거비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적정가격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적정 가격에 소유하거나 지불가능한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거실, 주방 및 공동체 공간의 공유를 통해 작지만 여유로운 주택 공급).
- 개인주의로 발생하는 거주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한다. 텃밭, 공방, 북카페 등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재능품앗이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 공동체주택의 유형
 - 공급방식: 자가소유형(조합), 공공임대형, 민관협력임대형, 민간임대형
 - 거주자 특성: 육아형/노인돌봄형/다문화형/청년일자리형/동일직업형/1인가구형
 - 유형 사례: 은퇴세대 자가소유형, 예술이 자가소유형, 예술인 공공임대형, 육아가구 공공임대형, 예술인 민관협력 임대형
- 공동체주택 공급 사례(자료: 공동체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
 - 삼전동 배우의 집, 도봉구 예술인 공동체주택, 강동구 상일동 예술인 (1인 크리에이터 공동체주택 (SH)), 강동구 천호동 도전숙 (창년창업인 공동체주택 (SH), 신내동 육아형 공동체주택 (+어린이집), 금천구 보린주택 4호 홀몸어르신주택, 신내동 여성예술가 공동체주택, 불광동 은퇴세대주택 '구름정원 사람들', 성산동 예술인주택 '따뜻한 남쪽', 민티동 예술인주택 '막국', 가양동 육아카구주택 '이음채', 면목동 공동체 마을

나. 사회주택

- 사회주택의 개념
 - 사회주택은 일반 시민이 적당하게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즉, 사회적경제주체가 개발, 공급 그리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운영주체는 입주자가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 사회주택 특징

-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시세 80%)
-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회주택 유형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의 토지를 민간에 오랜 기간 저렴하게 임대해주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 유형으로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노후 주택 또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사회주택이다.

- 입주자격(2018년 기준)

- 1인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3,501,813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5,002,590원 이하
-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20%이하 6,003,108원 이하

- 사회주택 공급 사례(자료: 사회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

- 자몽 셰어하우스 갈현점(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미래의 집' 유디하우스(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자몽 셰어하우스 이화점(마을과집), 녹색친구들 행운, 단비하우스 불광, 공가 셰어하우스, 쉼어어스, 쉼어원 오렌지, 아이부키 홍시주택, 셰어하우스 우주

(2) 삼선동 배우의 집

가. 개요

- 목적: 선후배 청년연극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주택으로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것을 넘어 일적인 측면에서도 ‘선후배’가 함께하여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뤄내는 ‘성장지원형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주거공간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스튜디오, 마을커뮤니티가 결합된 예술인들을 위한 공동체 지향, 청년연극예술인이 모여 살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있다.
- 대상: 만 39세 미만의 1인 거주 청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기준으로 하는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연극인 등 연기를 하고 있거나 배우를 꿈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체주거 규약에 동의해야 한다.
- 거주 인원: 10인
- 비용: 보증금(5,000,000원), 월세(300,000원~380,000원, 관리비 포함)
- 개발 방식: 토지임대부 공동체 주택, 민관협력 임대형 (시유지 토지임대 후 리모델링 진행. 서울시 소유의 땅에 건축가가 집을 저렴한 값에 임대. 월 임대료는 서울시에 지불하며 이 비용은 세입자들의 임대료에 포함)
- 개발 주체: 서울시 +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 건축 개요: 대지면적(148㎡), 연면적(254.61㎡), 주거형태(다세대주택), 건축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 입주년도: 2016년 1월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8가길 4(삼선동3가)

나.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 같은 분야 종사자로 입주민이 구성되어 있어 외로움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2~3인이 함께 거주하는 단위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구조이며, 개인공간의 독립성의 확실하게 보장한다(개인 침실 + 개인 욕실).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와 지역주민 연계형 프로그램이 커뮤니티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표 5-6]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삼선동 배우의 집

항목	내용
층별 용도	· 지하 1층 (공동주방, 스튜디오, 주차장, 셰어하우스) · 지상 1층~2층 (셰어하우스, 원룸)+옥상
개인공간	· 2인~3인 셰어하우스는 개인실/공동주방 & 거실로 구성 · 개인실은 3~7평, 각 실에는 침실/화장실/에어컨 구비
공용공간 + 커뮤니티 프로그램	· 공용거실/주방: 핵심 커뮤니티 공간 (반상회, 입주자 작업실) · 주차장: 주차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사무실, 거시판) · 스튜디오: 방음시설이 갖춰진 방송/연극 연습실 · 옥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바비큐 파티, 문화제, 텃밭 등)
커뮤니티 운영	· 입주자=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가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규칙적인 반상회의 운영이 어려움
지역주민 연계	· 옥상달빛 영화제와 스튜디오의 마을극장 프로그램 공개

자료: 공동체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



[그림 5-4] 삼선동 배우의 집 외관, 평면, 공간

(사진 출처: 공동체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 네이버 블로그)

(3) 신림동 쉼어스

가. 개요

- 목적: 신림동 고시준비생을 위한 사회적 주택이다. 고시원으로 표상되는 열악한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으로 특성화된 대상과 지역의 니즈에 맞춘 ‘성장지원형 커뮤니티’를 추구하고 있다.
- 방향: 개인 점유공간을 최소화하여 비용감소를 유도하고 생활공간을 공유하여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일 목적의 거주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한다.
- 대상: 고시생 중심
- 개발 방식: 리모델링 사회주택(빈 고시원을 리모델링 후 5년간 장기임대)
- 개발 주체(시행/설계/운영): (주)선랩건축사사무소

- 개발 사례: 에벤에셀, 청송, 거송 등 인근 지역의 여러 지점 개발



[그림 5-5] 신림동 쉼어어스 현황

(사진 출처: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네이버 블로그)

나. 사업 기획

① 수요층 분석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주요 수요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전반에 걸쳐 클러스터형 개발 계획이 초기부터 정립되어 있다. 또한 수요층 세분화를 통해 거주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들의 생활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과 연계된 공유 주거 개발을 진행하였다.

• 대상 (고시생 중심)

- 고시·공시 준비생: 에브리데이 파이팅족
(매일 같은 패턴의 삶이지만 노력을 믿는 청년)
- 취업 준비생: 내일찾기족
(자신의 일과 가치관을 위해 오늘에 성실할 줄 아는 청년)
- 사회 초년생: 티끌모아죽
(통장을 스쳐가는 월급에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청년)
- 대학교 저학년생: 열정 만족(하고 싶은 것들로 열정이 가득한 청년)

• 라이프스타일 조사

- 평일보다 주말에 고시촌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고시생은 학원운영시간으로 생활패턴이 정해진다.
-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고시를 준비할 경우 본인을 고시생으로 판단한다.

②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맞춘 면밀한 공간·시설 계획을 정립하였다. 또한 세분화된 공간, 프로그램 비용 차등 정책을 구조화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자료: 공유주택 커뮤니티 공간 특성 및 운영 사례, 선립건축사사무소 현승헌).

[표 5-7]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사업기획 조사·신림동 쉼어스

항목	내용
공간/시설	·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공간 구조 및 사이즈 제시 (침실 최소 주거 면적 기준 워크숍76㎡) · 공유하는 인원수에 따른 주거 유형의 다양화 · 수납/가구/기타 시설 등의 효율적 시스템 개발 (개인 소유물 소요 용적 정립) · 위생시설 적정 기준 (프라이버시, 세면기+대변기+샤워부스 1SET, 5인 이내)
입주자 관리 프로그램	· 기존에 운영 중인 온라인 매체 및 지역 내 게시판을 활용하고 공고 · 이미 운영중인 공간의 대기자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오픈 하우스 및 사전 체험 · 지역적 네트워크간 협의를 통해 사전 입주자 선정의 프로세스 마련
운영	· 멤버십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이용 및 생활서비스 제공 · 멤버십 할인제를 통해 공간 활성화 및 자발적 관리 유도 · 지역 니즈에 따른 멤버십 형태 다양화
비용 지불 차등화	· 공간별/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요금 및 기간/용도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의 맞춤형 요금제 운영 · 공유의 방식에 따른 주거비의 차등 적용 · 공유활동에 의한 셰어링 머니 적립제

항목	내용
입주절차 프로세스	• 매년 1월/7월 입주모집 공고(온/오프라인 매체 지역 네트워크) • 입주문의 (희망 유닛 결정, 간단한 개인정보) • 공간체험 오픈 하우스(공간체험 기존 입주자 만남) • 입주자 매칭 입주 결정 (계약진행 생활규칙 안내) • 매년 3월/9월 입주(6~12개월 단위 연장계약)
지역주민 연계	•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방안(계획부터 협업관계 형성): 유희 부동산 발굴단계부터 파트너십을 맺어 지속가능성 모색 • 지역의 건축전문인력 연계를 통해 일자리창출 유도: 입주자모집 및 프로그램홍보 등 지원센터의 홍보지원 • 웹앱 개발로 체계적 입주시스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축제/워크숍/교육활동 다양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1호점을 공간거점으로 입주 자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유도(부분별 위탁운영): 총별 위탁운영을 통해 특정 타겟을 위한 공간계획 반영, 입주자 커뮤니티의 다양성 유도, 시범운영을 통한 운영체제 보완

자료: 공유주택 커뮤니티 공간 특성 및 운영 사례, 선립건축사사무소 현승현

다. 쉼어어스 [에벤에셀] _ 고시원 대안모델 1호 SHARE-US

- 연면적/공간 용도/규모: 약 400m²/고시원/1~4층(4층)
- 거주 인원: 21인
-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3-198번지

[표 5-8] 공간 조사 신림동 쉼어어스 에벤에셀

항목	내용
개인공간	1+1/2/3/6 유닛으로 구성된 다양한 유형을 제공
공용공간	저층부에는 전 층 단위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라운지와 데스크 공간을 제공하고 각 층별로는 특성화된 공용공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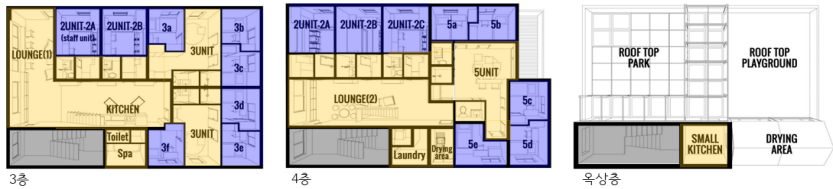
[그림 5-6] 신림동 쉐어어스 에벤에셀 외관, 평면, 공간

(사진 출처: 쉐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네이버 블로그)

라. 쉐어어스 [거성]

① 개요

- 입주 자격: 서울시 거주하는 1인 가구, 월평균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
- 연면적/공간 규모/용도/인원: 전용 442.23m²/3~4층/다중생활시설/21인
- 비용: 보증금(1,500,000원~2,000,000원), 월세(220,000원~330,000원)
-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6-25번지



[그림 5-기]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층별 평면

(사진 출처: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네이버 블로그)

② 공간

- 개인공간: 4가지 공유주거타입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을 선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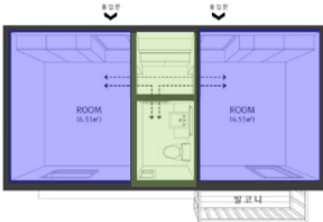
[표 5-9] 개인공간 조사_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항목	내용
1+1 TRANSFORM SELECTION	• 혼자 혹은 둘이서 개폐 구조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실별 분리된 출입문이 있고 욕실을 공유할 수 있어 원하는 용도로 사용 • 욕실, 발코니, 작업실, 1F 라운지, 공유부엌, 2~3F 스터디룸 공유
2 DOUBLE SYNERGY	• 생활 패턴이 유사한 둘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이층침대가 있는 침실과 다른 하나의 공유공간 • 욕실, 발코니, 1F 라운지, 공유부엌, 2~3F 스터디룸 공유
3 MINIMAL WITH	• 비슷한 취미나 성향을 가진 셋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1인 침대와 접이식 책상이 있는 개인실 3개와 거실형 공유공간 • 거실, 화장실, 샤워실, 발코니, 1F 라운지, 공유부엌, 2~3F 스터디룸 공유
6 GROUP COMMUNITY	• 청년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여섯이 목적에 맞는 활동 가능 • 공유아이템: 거실, 커뮤니티홀, 부엌, 화장실, 샤워실, 욕실 발코니, 1F 라운지, 공유부엌, 2~3F 스터디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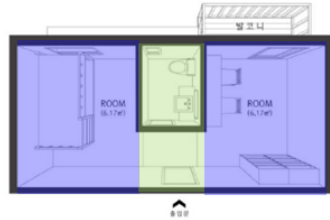
자료: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1 + 1 UNIT TRANSFORM/ SELECTION

혼자 혹은 둘이서 거주하기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적 취향과 작업실, 두 사람의 주거공간,
 실험 분야는 출입문이 있고 욕실을 공유할 수 있어 입주자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UNIT** DOUBLE/ SY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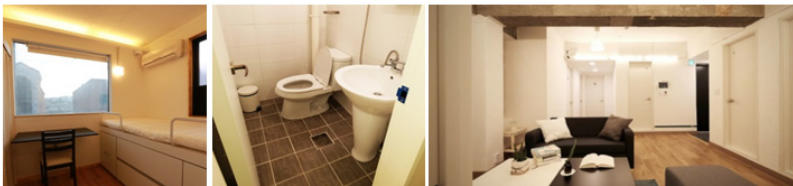
생활 패턴이 유사한 둘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중 침대가 있는 침실과 다른 하나의 공유공간,
 출입의 거실 혹은 조용한 독서실— 둘의 생활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UNIT** MINIMAL/ WITH

비슷한 취미나 생활을 가진 셋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인 침대와 작업이 가능한 개인실 세 개와 거실형 공유공간,
 외출이 편리한 1인 가구들이 모여 가족같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입니다.

**6 UNIT** GROUP/ COMMUNITY

키가 형식적, 혹은 만들어 가고 싶은 일상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인 개인실과 통로로 쓰일 복도는 7인의 공유 공간으로,
 테이블, 의자, 소파, 스탠드, 조명 등 그룹의 성격에 맞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림 5-8]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개인공간

(사진 출처: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네이버 블로그)

- 공용공간

- 자신만의 책상을 가지고 공부, 작업, 사무공간으로 활용
(DESK/LOUNGE-1일 혹은 월 단위 이용 가능)
- 여럿이 모여 함께 공부하거나 즐기는 모임 공간으로 사용
(BOARD/FLOOR/MEDIA-2인 이상, 3시간 단위 이용 가능)

- 함께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을 제안
(LOUNGE/GARDEN-밥/영화모임, 워크숍, 바비큐 파티, 지역 주민에도 개방)

[표 5-10] 공용공간 조사_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항목	내용
LOUNGE CAFE/COMFORT	• 편안한 휴식과 활기찬 이벤트가 가능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 최대 30명/요리/식사/카페/휴식(조리기구, 음료, OA서비스, 서가)
DESK WORK/STUDY	• 개인 또는 그룹 단위의 학습이나 작업이 가능한 조용한 몰입형 공간 • 최대 5명/개인학습/업무/작업/독서(1인용 좌석, 음료, OA서비스)
BOARD	• 회의나 그룹스터디를 위해 보드로 구성된 모임공간
MEETING/FOCUS	• 최대 8명/회의/미팅/소모임/그룹스터디(6인용 좌석, 화이트보드)
FLOOR	• 취미활동, 친목도모 등 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좌식형 공간
HOBBY/RELAX	• 최대 8명/취미활동/독서/소모임/여가(좌식 테이블, 쿠션)
MEDIA	• 회의나 그룹스터디를 위한 모임 공간
VIDEO/LESSON	• 회의/소모임/그룹스터디
INFO GALLERY/SHOP	• 재능 있는 청년, 커뮤니티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소품형 공간
GARDEN REFRESH ENTERTAINING	•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옥상 정원

자료: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그림 5-9]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공용공간

(사진 출처: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네이버 블로그)

③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 내부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표 5-11]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항목	내용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 내부 프로그램 및 지역 연계 외부 프로그램 운영 • 자발적 커뮤니티 행사 유도 (오픈하우스, 입주자모임, 마을 살롱 등)
생활서비스 제공	• 비상약 제공, 택배보관 서비스, OA 서비스(출력/스캔/팩스) • 스몰 커뮤니티 형성 (공유밥상 활동 등) • SHARE-US[에벤에셀] 입주자모임

자료: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그림 5-10] 신림동 쉼어어스 거성 프로그램 운영**

(사진 출처: 쉼어어스 웹사이트 <http://share-us.kr>, 네이버 블로그)

3_국외 사례

1) 일본 _ 페스파 교토 Fespa Kyoto

(1) 개요

- 목적: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험, 기술, 인맥을 공유하는 세 어하우스로, ‘성장지원형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
- 대상: 기업인과 예비 기업인(성장을 위한 열정과 목표의 명확성 심사)
- 거주 인원: 현재 27명, 3년간 80명 이상의 기업인이 거주하였다. 20대~50대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입주 예약 리스트에 따르면 기업 경영 베테랑 기업가, 해외 사업 전개 중인 기업가, 하와이에서 사업 중인 포토그래퍼, 도쿄에서 활약하는 무료 카피라이터, 사업 기획 중인 직장인, 사업 시작 예정인 싱글맘 등 다양하다.

- 비용: 월세 ¥25,000~¥96,000(약 25만 원~97만 원), 관리비 ¥15,000~¥20,000(약 15만 원~20만 원)
- 개발·운영 주체: 리브커뮤니케이션즈(부동산, 건설, 마을만들기 사업전개) 셰어하우스 이로도리팩토리는 도쿄에서 2개의 기업형 셰어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3년간 80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30개 이상의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15명 이상이 회사 설립을 하였다.
- 건축 개요: 주거형태 (다세대주택), 건축규모 (지상 1~4층)
- 입주년도/주소: 2015년 12월/일본 교토부 무코시

(2)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 개인실, 도미토리룸의 개인공간과 주방,라운지의 공용공간으로 구성
- 창업이란 공동 키워드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서로 지원, 협력
- 멘토링, 세미나, 스터디, 네트워킹 파티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표 5-12]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_페스파 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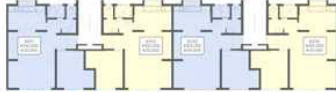
항목	내용
층별 용도	· 지상 1층(개인룸, 공동주방, 라운지, 화장실, 바비큐 난로, 주차장) · 지상 2층~4층(원룸, 도미토리룸, 공동 화장실)
개인공간	· 개인실은 10m ² /60m ² , 도미토리룸은 16m ² · 실별 에어컨, 인터넷, 디지털 도어락 구비/화장실 포함 여부 차등
공용공간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 멘토 기업가들에게 일상적 조언 제공 · 정기적 스터디, 세미나 실시(비즈니스 기술/사업 아이디어 세미나) · 매월 기업가들을 초대하는 교류의 장. BBQ 파티 등 네트워크 모임 · 공용 라운지, 코워킹 스페이스(24시간) 개방
커뮤니티 운영	· N/A
지역주민 연계	· N/A

자료: <http://landsat.jp/gallery/kirin-sharehouse/>

1F全体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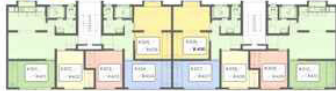


2F



2Fはカプセル、夫婦向け2LDK

3F, 4F



3F, 4Fは車庫・倉庫・共有スペース（リビング、キッチン、お風呂、トイレ）



• 개인 공간



• 공용 공간



[그림 5-11] 페스파 교토 외관, 평면, 공간

(사진 출처: <https://irodorifactory.com/kyoto>)

2) 중국 _ 하버유스 커뮤니티 상하이 Harbour Youth Community

(1) 개요

- 목적: 싱글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상하이의 공유 주거이다. 일상생활을 함께할 지인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 싱글끼리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
- 대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25세~35세 싱글, 안전을 중요시 하는 싱글 여성, 오피스 사무직 종사자 (중국인만 가능)
- 거주 인원: 120인
- 비용: 월세 5,150 위안~8,150 위안 (950,000원~1,600,000원), 관리비 250 위안 (46,250 원. Utility 비용별도) 상하이는 서울보다 평균 월임대료가 약 2배 높은 편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해당 임대료는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수준이다.
- 건축 개요: 주거형태 (주상복합 아파트)
- 건축규모: 지하 1~3층
- 입주년도: 2017년 4월
- 주소: 중국 상해 북쓰촨로 818

(2)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 주상복합아파트로 독립 개인공간과 세탁실/빨래실/피트니스룸, 그리고 영화감상실/라운지 등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CTV 설치·안전 요원의 상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 생일파티, 싱글파티, 할로윈 파티 같은 공식적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고, 이외에는 입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 백화점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기 엄금으로 아파트 내 주방이 없어 함께 외식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표 5-13] 공간 & 커뮤니티 케어 & 프로그램 조사-하버투스 커뮤니티 상하이

항목	내용
층별 용도	• 지하 1층(컨시어지 데스크, 라운지, 피트니스룸, 영화감상실, 화장실) • 지상 1층~3층(개인실, 세탁실, 발레 건조실)
개인공간	• 개인실은 24m²/35m²/34m²~66m² • 화장실, 침대, 책상, 미니냉장고, 세탁기, 수납장, 신발장 설치
공용공간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 생일파티, 싱글파티, 게임, 할로윈 파티와 같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입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액티비티가 진행(예시 : 빵소를 만들기) • 공용공간 활용 입주민 교류 지원(라운지, 피트니스룸, 영화감상실 등)
운영	• 공용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느슨하고 자발적인 커뮤니티 구성 • 건물 내 주방이 없어 함께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는 친구같은 관계 형성 • 생활 규칙은 계약서를 통해 공지 (화기엄금, 펫 출입금지, 고성방가 금지)
지역주민 연계	• N/A

자료: <http://wap.harbourhome.com.cn/homeCenter>



[그림 5-12] 하버투스 커뮤니티 상하이 외관, 평면

(사진 출처: <http://wap.harbourhome.com.cn/homeCenter>)

• 개인 공간



• 공용 공간



[그림 5-13] 하버하우스 커뮤니티 상하이 공간

(사진 출처: <http://wap.harbourhome.com.cn/homeCenter>)

4_발견점: 문제 정의와 시사점 도출

1) 핵심 메시지

(1) 문제 정의

누구나 안정감을 주는 준거 공동체가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향해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없다면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2) 시사점 도출

“물리적인 여건 이전에 누군가에게 충분히 존중을 받고 공감을 받는 공동체를 경

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별 케어보다는 통합적·연속적인 과정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발견점 종합

[표 5-14] 벤치마킹 리서치에 의한 커뮤니티 하우스 특성

개요	대상	· 유사한 분야(선후배), 상황·목적(주거취약, 고시생), 지역, 연령의 청년층
	거주 기간	· 자립지원 공간은 보통 6개월~3년이며, 민간 임대는 특별한 제한 없음
	비용	· 자립지원 공간은 소정의 관리비 지불(월세는 없음) · 국내는 20~35만 원, 해외는 입지와 수요층에 맞춰 다양함
공간	개인공간	· 작아도 개인공간의 독립성 보장(예시: 개인 침실+개인 욕실) ·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닛 제공 · 공동으로 거실/주방/욕실을 사용하는 모듈은 보통 3~7개 유닛
	공용공간	· 개인공간은 콤팩트하게 구성하고 공용공간은 다양하게 제공 (예시: 학습/작업/사무 공간, 모임 공간, 어울림 공간 등)
운영	커뮤니티 케어	·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에 의한 생활규칙 기획 및 운영 ·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예시: 비상약 제공, 택배 보관 등)
	프로그램	· 교육과 자립 이전에 삶의 변화를 위한 자존감 회복 우선시 함 (예시: 여행/공연을 통한 자기 극복과 미래 설계, 물입의 경험) ·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자립/성장지원 프로그램 실행 · 청년기에 적합한 경제/진로/일자리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기타	· 입주 전후의 변화를 위한 계획을 확인하고 선정 (세품아 제외) · 지역주민 연계형 프로그램이 지역 커뮤니티에 활성화에 유용

06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 1_주생활 핵심 가치
- 2_솔루션 아이디어
- 3_사업 단계별 정책 제안
- 4_기대 효과

06 |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1_주생활 핵심 가치

1) 개요

(1) 핵심 문제 정의

“퇴소 후 처음으로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외로웠다.”

“오늘 당장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진로 고민을 할 수 있을까?”

(2) 목표와 방향

가. 목표

-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한시적 주택으로서 커뮤니티 하우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하우스는 이들을 위한 독립적인 주거로 계획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다양한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된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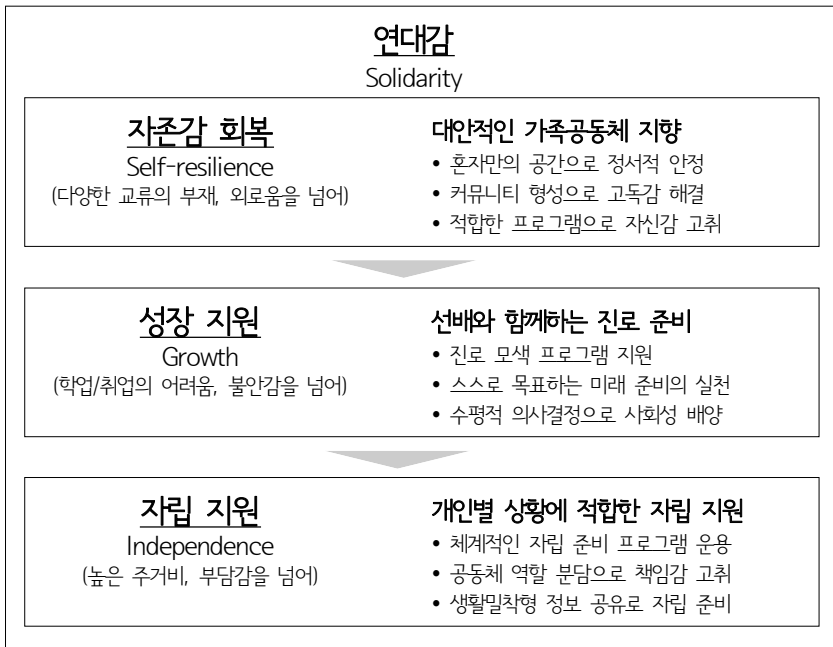
나. 방향

- 자존감의 회복, 자립과 성장이라는 목표와 활동이 분명한 ‘모여 삶’을 추구한다.
- 작지만 독립적인 개인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공용공간을 제공한다.
-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연계해서 기획/건립/운영한다.

2) 핵심 가치

주거취약 계층인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이 한시적으로 거주 가능한 커뮤니티 하우스를 건립하여 특성화된 공간/프로그램/커뮤니티 케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표 6-1]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핵심 가치 제안



2_솔루션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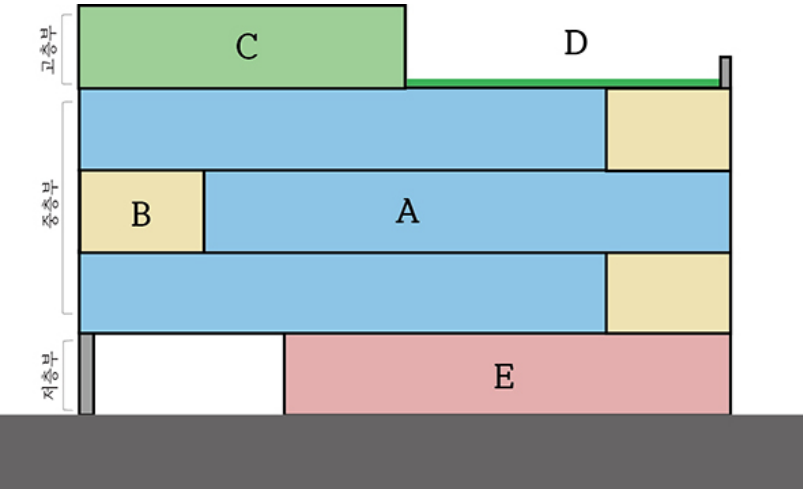
1) 개요

- 대상: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 거주자 구성과 인원: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선후배 청소년(15~20인), 케어 멘토(1~2인, 비상주)

- 공간 구성: 대지 330㎡(100평), 연면적 260㎡ 이상(80평, 공급면적 인당 5평/16인 기준)
- 건축 용도: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생활시설 중
- 입지: 지하철역 15분 내외 위치
- 비용: 월세 약 20~30만 원 내외
- 입주 기간: 2년(+1년 연장, 대학생의 경우 추가 연장 가능)

2) 공간

- 프라이버시 확보와 일상적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공간 구성
- 자립 및 성장 지원형 공간과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연계
- 검박하지만 유용성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Affordable House 제공



[그림 6-1] 커뮤니티 하우스 공간 구성과 참고 이미지

(A 개인공간, B 층별 공용공간, C 전 층 단위 실내 공용공간, D 전 층 단위 실외 공용공간, E 공용 혹은 근린생활 공간)

[표 6-2]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공간 구성 제언

영역	사용자 접근성	공간 구성
A	개인공간 (1모듈=4~5유닛)	· 일반형 (개인 침실+공용 욕실) · 프라이버시 강화형 (개인 침실+개인 욕실) · 케어 매니저 휴게 공간
B	공용공간 (총별 단위)	· 공유 서재, 공유 운동실, 공유 작업실 등
C	공용공간 (전층 단위 실내)	· 공유 주방, 식당, 거실, 취미실 등
D	공용공간 (전층 단위 실외)	· 옥상정원, 텃밭 등
E	공용/근생 공간 (외기에 면한 지상층)	·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개방형 공간 (예시: 수억창출 및 창업 지원형 공간, 코워킹 카페)

3) 커뮤니티 케어

- 평등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밀한 커뮤니티 지향
- 커뮤니티 운영/생활 규칙 등 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 방식
추구(커뮤니티 운영/생활 규칙/정서적,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예비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 학습)

[표 6-3]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운영 및 생활 규칙 제언

특성	커뮤니티 운영/생활 규칙
평등	<u>모두가 똑같이 1표</u>
자율	· 수평적, 자율적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 케어 멘토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신뢰	<u>개인 사생활 배려</u> ·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커뮤니티 지향, 남의 물건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기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음 금지, 지인 초대 관련 내부 규정 합의
존중	<u>함께 만드는 문화</u> · 생활관리 측면에서 에코라이프 실천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등)
책임	· 상호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애완견 케어를 통해 정서 안정 및 책임의식 고취 <u>알umni (Alumni) 관리</u>
협동	· 커뮤니티 하우스 졸업 후에도 기존 입주 후배와 교류 기회 제공 · 자립 후에도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믿는 연결고리 마련
성장	<u>자립 준비</u> · 케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개인 자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1 지원 ·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스터디 모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4) 프로그램

- 핵심가치인 연대, 성장, 자립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
- 신규 개발보다는 이미 유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협업해 프로그램 맞춤 설계·운영

[표 6-4]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예시)

특성	방향 및 예시
자존감 회복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 · 세피아 '나를 만나는 몽골 힐링 캠프' 참여 · 프롬더바디 건강 증진 클래스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하기' 연계
진로 탐색	주요 관심사와 재능 발견을 위한 창의적인 진로 모색 · (예비)사회적기업 소이프 아동보육시설 청소년 대상 디자인 진로 교육 · CJ 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서비스/요리/생산전문가 과정) · 하자센터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토요진로학교/비커밍 프로젝트) · 청년허브(청년창업/청년할 프로젝트)
역량 강화	진로와 연계하여 멘토링 제공 및 다양한 체험 학습 · Global Youth Fair 자원봉사 기회로 글로벌 문화 노출 · 무중력시대의 무중력 보습학원(청년 맞춤 일상 강연) 및 윗세대 멘토와의 연결, 소통하는 멘토넷 프로그램 활용
경제 교육	생활비 관리를 비롯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 · 삼성증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경제증권교실' · 서울시 '희망 두 배 통장' 소개 및 신청 유도 운영

3_사업 단계별 정책 제안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이 한시적으로 공동 거주하는 커뮤니티 하우스를 특성화된 사회적 주택이자 '서울시 공동체주택 시범사례'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1) 사업기획 단계

(1) 주요 과제

- 사회적 경제주체 컨소시엄에 따른 파트너십 구축 : 사업기획, 건축설계와 시공, 공동체 코디네이팅, 입주자·시설 관리, 커뮤니티 케어와 프로그램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친 협업을 중점으로 한다.
-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기획과 운영: 설립 전부터 예비모임을 운영하여 공간/커뮤니티/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정하고, 입주 후 자율적으로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그 외 공동체 공간 맞춤형 설계 기획, 공동체 운영 계획, 자금 조달·운영, 커뮤니티 케어와 프로그램 기획 등을 실행한다.

(2) 정책 제안

-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단단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특성화된 주택이 민관이 협력하는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으로 운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상황보다 강도 높은 주거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보조금, 기금 융자, 대출 보증, 택지 확보, 사업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이 요구된다.

2) 건립 단계

(1) 주요 과제

- 토지·건물 매입, 임대의 과정, 공간 설계·인허가 그리고 시공 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입주민 협의체와 마을 네트워크 구성, 홍보와 온라인 플랫폼 제작이 실행되며 무엇보다도 사업 전반의 자금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2) 정책 제안

- 내공사, 서울시가 보유한 빈 땅, 빈 집을 싼 가격에 장기간 임대해주는 정책과 연계되어 더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이루고자 한다.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와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 등과 연계한 사회공헌적인 성격이 부여된 설계 협업 과정이 요구된다.
- 집수리닷컴, 건설명장 등과 함께하여 완성하는 걱정 주거(Affordable Housing) 건립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운영 단계

(1) 주요 과제

- 멤버 모집·선정 과정으로 소득 기준, 커뮤니티와 프로그램 참여 의지, 성장·자립 준비 계획, 공동체 규약에 동의의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 케어 매니저가 선정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공동체 관리·임대료, 공동체 운영비 관리가 진행된다.
- 그 외 마을 네트워크 협력적 운영, 입주자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 건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가 진행된다.

(2) 정책 제안

- 민관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유용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성장·자립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기대된다(예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허브, 무중력지대, 하자 센터, 희망 두 배 통장 소개 및 사용 도움 등).
-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회주택으로 마을공동체와 교류 시도하고자 한다(예시: HUG 코워킹업무공간 조성사업으로 1층 조성 후 개발).

- 공동체주택 입주자를 위한 대출제도에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대학생 등 특수한 상황의 대상자도 포함되어 대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_기대 효과

이번 연구로 아동보육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주거 여정과 주거 니즈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커뮤니티 케어 기반의 주거공간의 벤치마킹으로 이들을 위한 공간-커뮤니티의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연대와 성장 그리고 자립의 토대가 되는 공유 주거공간이 실체화 된다면,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와 막 퇴소한 후배가 2~3년간의 주생활 인큐베이팅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적인 공동체 주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혼모 가구, 조손 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그리고 다문화 한부모 가구 등을 위한 특성화된 커뮤니티 하우스도 점진적으로 실체화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커뮤니티 하우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로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봉수, 2013, “국내 미술시장 현황 연구: 미술시장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경영관리연구』, 6(1): 27~49.
- 김봉수, 2015,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국내 미술시장 현황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
- 최정신, 2016, 「성공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침 : 덴마크와 스웨덴의 코하우징 주택을 중심으로」.
- 이혜연,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현승헌(산립건축사사무소), 2017, 「공유주택 커뮤니티 공간 특성 및 운영 사례」, 사회주택 아카데미.
- 서울시, 2017, 「함께 살아 좋은집 공동체주택 매뉴얼 북 자가소유형」.
- 서울시, 2017, 「서울시 공동체주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관리규약 사례조사」.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7, 「자립지원업무매뉴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30~32.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s://www.welfare24.net> (더나은 복지세상)
- <http://www.adongbokji.or.kr> (한국아동복지협회)
- <http://www.adongbokji.or.kr> (중앙아동청소년자립 통합사업단)
- <http://www.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http://www.s-adong.com>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 사업단)
- <http://child.seoul.go.kr>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 <http://www.bokjinews.com> (복지연합신문,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 <http://www.newsworks.co.kr> (뉴스웍스)

<http://www.ibabynews.com> (베이비뉴스)

<http://www.adongcda.or.kr> (디딤씨앗통장)

<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보호종결 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http://www.sessak.org> (새싹재단)

<http://www.soyf.co.kr> (소이프)

<http://wahaha.or.kr/bisang> (자립관 비상)

www.sepuma.or.kr (세상을 품은 아이들)

<https://soco.seoul.go.kr>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http://www.withsomehaus.com> (삼선동 배우의 집)

<http://www.jutek.kr> (주택자널)

<http://share-us.kr> (쉐어어스)

<http://landsat.jp/gallery/kin-sharehouse> (랜드샷)

<https://irodorifactory.com/kyoto> (이로도리팩토리)

<https://youtu.be/FSwdAH0aQAM> (페스파 교토)

<http://wap.harbourhome.com.cn> (하버하우스커뮤니티)

<http://fromthebody.co.kr> (프롬더바디)

<https://www.donorscamp.org/dreamcook.do>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요리아카데미)

<https://haja.net> (하자센터)

<https://youthhub.kr> (청년 허브)

<http://www.samsungyaho.kr> (삼성증권 청소년 경제교실)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연구를 마치며

Epilogue

우리나라에서 보호 아동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그다음에 ‘미혼모’라고 합니다. 명견만리 ‘가족이 필요해’에서 그려진 것과 같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 가족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이 본연의 권리이지만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 위탁 혹은 입양 등으로 가족 단위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보호 아동이 시설 내 돌봄과 규칙 아래 성장하게 됩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본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퇴소식 풍경은 보통 가정에서의 성년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쁨과 설레임을 동반한 축하의 행사가 아닌 앞날에 대한 슬픔과 염려가 교차하는 눈물의 이별식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만 18세는 어엿한 성인이지만 이들이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루기에는 아직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보호 종료 이후의 삶을 더욱 염려하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전반에 걸쳐서 긴 시간을 아이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분들을 인터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아래의 두 문장입니다.

“퇴소 후 처음으로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외로웠다.”

“오늘 당장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진로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주거여정 행보를 꼼꼼하게 기록해 보고자 하는 작은 결심이 보호 종료 이후 한시적으로 머물면서 더 온전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제안

하게 되는 큰 그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꼭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pecial Thanks to

시작은 작은 연구였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생각보다 커져 버린 연구 작업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에 분노하기도 하면서 맥주 한 잔, 떡볶이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열심히 토론을 벌였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과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그리고 팀워크란 바로 이런 것임을 보여준 은영, 현정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서울연구원과 사회복지의 방향과 자립의 의미를 조언하고 따뜻한 응원을 해 주신 김승연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 보호 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퍼소나 리서치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에서 대상자를 직접 리크루팅 해주시고 옆에서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챙겨주신 밀리언니, 아이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중간에서 힘써주신 성화언니, 보호 종료 청소년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자립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고 계신 고대현 소이프 대표님, 10년간 묵묵히 세피아 아이들의 편에 서서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명성진 세피아 대표님,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보듬어주시고 정확한 상황과 문제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신 열정 넘치는 이남용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능 준비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택이, 본인의 상황 속에서 밝고 긍정적으로 아무지게 성장하는 모습에 우리를 감동시킨 대견한 올리비아,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듄직하게 함께 작업해준 듄직한 만형 같은 준호, 쉽지 않은 본인의 이야기를 낯선 이들에게 공유해준

멋지고 쿨한 BY Park 정말 고마워.

또한 상하이에서 현장 답사와 인터뷰를 주선해주시고 티하우스에서 Surprise Lunch를 제공해준 좋은 친구 Allan Chou. 마지막으로 평일 늦은 밤과 주말에 작업하는 데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가족들과 친구들.

Last but not least,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동행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가진 재능을 적재적소에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 당신, 사랑합니다.

신현정, 김은영



작은연구 좋은서울 18-05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주거 여정 조사 및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10월 2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